

[전문] 취임4주년 특별 연설서 코로나 위기극복 약속

"부동산 부패 반드시 청산", "한미동맹 굳건히 다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다"며 남은 임기 1년을 상기시킨 문 대통령은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라며 최근 계속적으로 하락한 국정지지율을 의식하는 듯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을 향해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조금만 더 견뎌주시요"라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긴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총 43번이나 언급된 '경제'에 대한 주된



내용은 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와 관련해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

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저 공분을 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코로나'는 총 26번, '위기'는 25번 나왔다. '방역'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총 11번으로 나타났다. K방역에 대한 평가도 내렸다. 향후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1월로 잡았던 코로나 백신 집단면역 시기도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칠겠다"며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감축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

끝으로 "남은 임기 1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라며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최광수/기자

[칼럼]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날이다



필자가 주 5회씩 1년간 약 210건의 칼럼을 쓰는 가운데 간혹 소재에 대해 망설일 때가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연유가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세상 이야기 중 가치도 있어야 하고 적당히 재미도 있어야 독자들도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준대 대한 예의가 아닐까.

마음 같아서야 야사와 같은 적나라한 정치권들의 뒷이야기와 아슬아슬한 여담까지 술술 쏟아내고 싶지만 솔직히 뒷담담하기 곤란하다는 게 사실이다.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한 날이기에 먼저 필독해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며 그럴 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왜 '유권자의 날'이란 소재가 오늘 이야기로 정해졌는지, 그리고 빙빙 돌려 말하겠지만 잘못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난 이야기를 어필하고자 한다. 독자분들의 응징성도 다소 필요한 만큼 '아'로 말하면 '어'로 받아들이는 센스도 필요하다.

자고로 선거란 민주주의 축제로서 사람이 살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꼭 필요한 절차이자 당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아이러니한 생물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개포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절대 장담할 수 없고 그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과에 승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다.

이러니 광복이후 77년이 지나도 요란한 언론의 쟁과리 소리에 멀거니 표가 물리는 건 여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잘못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가장 먼저 걷는 세금 나눠 쓰기다. 사전에 온갖 도시계획이나 크고 작은 사업을 벌여놓고 적절한 합법을 가장하여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는 방법인데 외관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니 제 아무리 대탄한 사법기관의 수사력이라도 그 기술을 따라가 기엔 역부족이다.

돈이란 게 퍼지면 누군가는 이득이 생기지만 빙빙 돌아 후보자의 선거자금으로 쓰인다며 그 돈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다.

교회 헌금을 빚지해 세탁된 돈, 사찰의 시주를 거쳐 세탁된 종교 세탁기 돈은 물론 난 전사회를 거쳐 수십 만원 짜리 난이 수익 원대에 팔리는 가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신축빌딩 고도 제한 풀어주고 몇십억, 하천변에 주차장 허가 내주고 몇십억, 아파트 층수 풀어주고 몇십억, 어려운 후보들이 이렇듯 발목 잡히니 무슨 공명선거가 이뤄지며 당선되고 나서 분전 생각이 나지 않을까.

어느 투자자가 정치철학 좋다고 대가 없이 자금을 댈 것이어 어쩌다 당선무효형의 재판에 국내 굴지의 로펌을 상대로 수십 억대의 막대한 변호사비를 댈 것인가.

'권불심년'이라 했다. 부정으로 얼룩진 정치인들의 첫 출발에는 무식한 유권자가 그 원인이며 어용 시민 단체가 두 번째 원인이고, 그런걸 알기에 해 먹으려는 정치권들이 최종 공범이다.

이런 판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돈뿐인가. 보은인사로 인한 폐단은 이제 눈치조차 보지 않고 막 나가는 형국이다.

안산시 성포동 노적봉 폭포 앞에 허영계 서있던 공룡알이 어느 날 사라졌다. 대구건설이 안산의 아파트시장을 석권하고 난 대가로 준비한 수십 억원의 도서관 건립비용은 그렇게 사라졌고 그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 피해자는 지금 세대가 아니라 후손들이다.

박암/김근식

10일부터 65세 이상 접종 예약 시작...정부 "거짓 소문 주의해야"

"어르신 예방접종, 본인 생명·안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며 반드시 필요"

정부가 65~69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하루 앞두고 접종을 둘러싼 허위정보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거짓에 의한 소문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신고되면 정부와 독립적인 의학과 과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검증 결과 지난 4월까지 신고된 사망사례 67건 중 65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으로 인한 사망이었으며 2건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을 맞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 등의 자극적인 소문이 많은데 고도의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있

으며 검증 결과 다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있고 그 결과들도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선진국에서는 안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맞는다는 거짓 소문도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유럽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접종률이 높은 영국의 경우 접종자의 3분의 1인 2100만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고 OECD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접종을 하며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나라도 접종을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저희 방역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고 외국에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총리들이 아스

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며 "고령층의 경우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집단면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는 고령층에게 아주 위험한 감염병이다. 전체 치명률은 1.5%이지만 60세 이상 환자에서는 5.2%, 100명 중 5명이 사망하는 치명률을 보인다"며 "오늘 현재까지 전체 사망자 1874명의 95%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에 한 번의 예방접종만으로도 86%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에 거의 감염되지 않고 설사 감염된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잘 악화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부작용으로 걱정하는 희귀혈전증의 경우 10만 명당 1명 정도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고, 조기 발견 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가장 과학적인 권고이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의·과학계와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방역당국의 신념이기도 하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어르신들부터 최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반과학적이고 거짓에 근거한 소문을 믿지 마시고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거듭 호소하며 "어르신들의 친지, 가족, 자녀분들도 어르신들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설명하고 예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최광수/기자

부산시·부산은행,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확산 업무협약' 체결

부산은행, 저탄소 실천 예·적금 출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게 우대금리 제공

부산시는 10일 오후 4시 40분, 시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은행과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민들의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장려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생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와 부산은행은 앞으로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저탄소 실천 예·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권장하고

시가 추진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 캠페인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시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과 생활 속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45만2천 세대가 가입하여 에너지 절약에 실천하고 있다.

개인 참여자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자치구·군 환경위생과를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해 「2050 탄소중립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역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분들께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와 더불어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캠페인, 탄소중립 국민실천 운동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송석준 의원,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 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간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천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봉안시설과 유골을 보호하는 내용의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에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분묘, 화장시설,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벌금, 봉안시설 이전명령 등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분묘나 자연장과는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나눔의 집 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 유골함에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의 염려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제강점기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와 할머니들의 영면을 막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추모사업이 위태롭게 된 것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봉안시설의 규모, 기준,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봉안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제한구역 위반으로 벌금,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매년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께 인사를 드리는 등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올해 어버이날에도 비대면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나눔의집을 찾아 카네이션과 계절과일을 전달하는 등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봉안시설이 파헤쳐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



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영면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윤모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4명으로 줄어 할머니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최광수/기자

김주영 의원, '국가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 건강, 안보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는 적합한 제품만 입찰 참가 가능케 해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가 달린 국가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약 이후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당하는 사례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제품의 적합도가 떨어져 재공고를 내는 사례의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가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현재 낭비를 막고 국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라면서 “입법 미비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납품되거나 재공고를 냄으로써 낭비되는 시간은 국가적 손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로 통과해서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에 서만큼은 부적합한 제품이 원천 차단되어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수홍, 조정식, 노웅래, 강병원, 윤후덕, 박상혁, 고용진, 양경숙, 박홍근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최광수/기자

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소병훈 의원 “앞으로도 청년·주거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앞장설 것”

앞으로 정부가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올해 4월부터 건설되는 모든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했던 것이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에어컨 등 기본 옵션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19년 12월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세대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도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하였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역시 전체 1,607호 가운데 1,010호(62.9%)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공급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년들이 직접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을 직접 설치하려면 주거비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필수 가전제품에 대한 옵션 기준을 마련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안/기자

이때 당시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재정지원 단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결국 지난 3월 소병훈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25㎡ 이하 규모의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존 냉장고, 전기·가스 쿨탑, 식탁·책상에 더해 에어컨을 기본설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이 입주 당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부담하던 수십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당시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재정지원 단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결국 지난 3월 소병훈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25㎡ 이하 규모의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존 냉장고, 전기·가스 쿨탑, 식탁·책상에 더해 에어컨을 기본설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이 입주 당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부담하던 수십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이 입주 당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부담하던 수십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정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계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 부: 내선 (112) 문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 02) 2612-2959
팩 스 :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산골오지 '경북 영양군'의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도와주세요

코로나19사태로 영양산나물의 판로가 막혀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농기도 돕고 몸에 좋은 청정지역 영양군의 산나물 드시고 코로나19도 이겨내요!

2021.4.21 ~ 5.21

영양군의 산나물은 4월 21일부터 사이스 및 네이버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사이스 Q**



영양군 VCTF 영양축적 관광재단

이환주 남원시장 중앙부처 방문 국비지원 건의

2022년 국가예산 확보 환경부, 행안부 방문



남원시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5월 6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2022년 국가예산사업 확보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였다.

먼저, 환경부를 방문한 이시장은 향교공원과 기 조성된 광치천 생태하천을 연계하여 생물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생태체험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60억원)의 지원을 건의하였다. 또한 노후된 남원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개선을 위한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선도사업(40억원)과 △내기·양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서는 부석~오촌 도로 확장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 지역 내 현안과 재난 안전수요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였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대강면 사석지구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386억원)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요청하였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적극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를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성, 당위성 등 설득 논리를 가지고 전북도,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맹정호 서산시장, '대산항인입철도' 건립 위해 동분서주

국토부 방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

맹정호 서산시장이 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대산항 인입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오는 6월 고시 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최종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이날 김선태 철도국장을 만나 그동안 추진사항들과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대산항 인입철도는 서산 대산항에서 당진 석문산단까지 17.3km(단선)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추가검토 사업'에 포함됐다.

'대산항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인근 장항선, 서해선 등과 연결, 전국 물동량 수송이 가능해져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날 맹 시장은 "대산항은 전국 무역항 중 화물처리 6위, 유류화물 3위로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63%(7만→12만TEU)나 증가하는 등 중부권 대표 무역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이자 70여 개 기업이 입주한 대산공단의 육상 교통수단은 국도가 유일해 물류수송비 증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체 교통수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내를 관통하는 대형 화물차 등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연간 140여건의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예로 들었다.

특히, 위험물운송 사고로 인해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 환경오염과 시민의 건강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어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 시장은 "대산항 인입철도 구간이 추가검토 사업에 포함될지 10년"이라며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대산항 인입철도는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최재은기자

거제시 변광용 시장, 환경부 장관과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협의

6일 서울 출장길에 오른 변광용 거제시장은 한정에 환경부 장관을 만나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적기 추진을 협의했다.

이날 변 시장은 한 장관에게 최근 거제시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환경부의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생태·자연도 개정 고시'와 관련, 합리적인 조사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거제 남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남부면 탐포리와 동부면 울포리 일원 369만 386㎡(112만 평)의 면적에 민자 4152억 원을 투입하는 복합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남도에서 2019년 5월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사업 고시를 하여 지금은 착공단계 시점에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립생태원이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를 통해 개발예정지의 생태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생태등급 문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거제시는 고시 직후, 골장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현장조사는 5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올 하반기 예정인 생태자연도 고시를 통해 1등급 지역이 재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변 시장은 "거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환경과 관광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거제시의 입장을 공감한다"며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한 뒤 해당사업을 쟁겨 보겠다"고 답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향후 조성이



완료될 시 체육형·체험·힐링·감성의 육해공 관광체험단지로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향후 가덕도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까지 개통된다면 거제 천만 관광객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는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영훈기자

광주광역시, "5·18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 되길"

이용섭 시장, 6일 '노면 소프 특별전' 전시 설명회 참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6일 오후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 '노면 소프 기증자료 특별전' 전시 설명회에 참석하고 전시품을 관람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 개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전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외신기자 노면 소프가 1980년 5월 당시 촬영했던 5·18 현장 사진 등 미공개 희귀자료 200여 점이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은 "노면 소프는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이 펼쳐졌던 1980년 5월 27일,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아냄으로써 언론인의 책무를 다했고, 41년이 지난 오늘,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데 일에 힘을 보태고자 또 한번 용기를 내어주셨다"면서 "소중한 기록자료들을 기증해주신 노면 소프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며 "이번 특별전이 5·18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면 소프 등 외신 기자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80년 5월 고립된 광주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연대의 뜻을 전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노면 소프 기증자료 특별전'은 7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전시 설명회에 앞서 도청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만나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1703일째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덕윤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청년이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

시민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부산시는 6일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학이 다 함께 참여하는「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산 청년들의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상황점검 및 당면이슈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오늘 4차 회의에서는 부산 청년들이 코로나 등 경제·사회적 위기로 인한 고용 위축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부산 이전 및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대표 및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분야의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오늘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부산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 위기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 및 일자리 정보 전달체계 고도화와 미스매치 해소 ▲IT기반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연수 기반 산학협력 인재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 유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원책이 있으나 개인이 모든 자료를 모으고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에게 제대로 된 청년정책 전달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청년 정책 및 일자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화

년 일자리 적체적소 공급을 위한 기업기반 수요조사 및 구·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1년도 추경에 32억을 확보하여 IT/SW 전공자 및 미취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IT/SW 기업 맞춤형 개발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인재양성 교육을 위한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며 ▲부산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를 설립해 5년간 SW 고급인력 5,000명을 양성해 지역기업에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도권이전 IT기업의 인재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5월 중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학협력추진단을 시, 대학, 기업, 교육청 등과 함께 구성하여 대학별 특성화된 산학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또한, 기업 맞춤형 대학 인재양성을 위해 강소기업과 대학을 매칭하여, 대학에서 프로젝트 기반 직무연수와 현장 실습 후 고용 연계까지 될 수 있도록 ▲부산형 직무연수 인턴 사업과 ▲부산형 코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미취업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기업 픽



(Pick) 실무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이번 달부터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분야 조사, 분석부터 청년과 기업의 상호 최적 일자리 매칭까지 책임지는 부산청년 매치업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 청년 워킹 캠퍼스를 운영하여 6개월 이상 지역사회 속 활동을 단절한 은둔형 외톨이, 극적 단념청년, 시설보호청년 500명을 발굴하고 취업도전 의지를 고취시키며 사회 재진입을 유도해 청년들의 경력단절을 해소할 계획이

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며, "청년 일자리는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결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기업과 청년,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청년을 비롯한 시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서울특별시, 7일 어버이날 기념식... 팔순의 환경지킴이 박종돌 씨 등 30팀 수상

오세훈 시장, 가족과 지역사회 돌봄을 실천하신 효행자 19명, 장한 어버이 8명 개인 표창

서울특별시가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오전 10시 서울시연합회 앞 마당에서 「제49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연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효행자, 장한 어버이와 효 실천 단체 등 30팀에 시민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행사 주최 측인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참석자 안전을 위해 사전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단 작성, 열화상 카메라 등을 준비,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속 70인 미만 규모로 행사를 진행한다.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가정과 지역의 어르신에게 효행을 실천해 온 숨은 효행자 19명, 넉넉하지 않은 여건속에서도 자녀를 바르고 훌륭하게 키워낸 장한 어버이 8명, 그리고 노인복지에 기여한 단체 3곳 등 총 30팀(명)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효행 부문에서는 정성어린 시어머니 병간호와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살피며 본보기가 된 이효숙 님 등 19명이 상을 받는다. 이 씨는 홀

로 사시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간병하다가, 시어머니의 증세 악화 후에는 직장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모셔와 간병과 영양식을 직접 만들어 드리는 등 극진한 돌봄으로 시어머니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등 효 사상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목2 동 룡장으로 활동한 8년 간 통장수당 전액을 매월 관내 복지관과 요양원에 모두 기부하는 등 자신의 가족 뿐만 아니라,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의 안위를 돌보는 등 어르신들의 섬김에 앞장섰다.

더불어 장성한 2남과 4명의 손자를 지극 정성으로 키운 동시에 경로당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환경지킴이'로 타의 모범이 된 박종돌 어르신 등 8명이 장한 어버이 상을 수상한다. 박종돌 어르신은 칠순을 맞이한 2006년부터 15년 간 거르지 않고 자택과 경로당 주변, 인근 대로변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면서 의욕적인 동네 환경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이울러 2003년 개관 이후 꾸준히



어르신들의 교육, 문화생활의 지원 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 노인복지 관련시설이 노인복지 기여 단체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운영 중단 위기 시 대응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복지관 운영중단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매뉴얼을 작성, 어르신들의 급식지원·안부확인 등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어르신들의 파수꾼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행자·장한 어버이·노인복지 기여 단체로 선정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어르신 복지의 중요성이 날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물심양면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도봉구 쌍문채움도서관, 2021년 특화 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 선정

도봉구 쌍문채움도서관, 2021년 특화 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 선정

2021년 쌍문채움도서관 예술 특화 특화 도서관 육성 사업 안내

운영기간 2021. 5. ~ 2021. 9. 신청방법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사업내용 지역 예술가와 결합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5월 시니어 수재화 캘리그래피 7월 어린이 오감만족 도예클래스 8월 성인 표현 예술놀이터

도봉구 쌍문채움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에 지난 4월 2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은 도서관별 특정 분야의 전문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에는 전국 62개 도서관이 신청하여 15곳이 선정됐다.

이에 쌍문채움도서관은 지역 예술가들의 학습 공동체 연구 결과를 반영해 지역 사회에 적합한 예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예술'주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수행하고, 지역 유일의 예술 특화도서관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쌍문채움도서관은 5월부터, 도봉구 지역 예술가 강사와 함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시니어 대상 수채화 캘리그래피(5월) ▲어린이 대상 오감만족 도예클래스(7월) ▲성인 대상 나를 표현하는 예술놀이터(8월)를 운영한다.

쌍문채움도서관은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예술 활동들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역 특화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특화도서관 육성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 안내는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쌍문채움도서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쌍문채움도서관만의 참신한 예술 결합 독서문화 서비스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봉구 문화예술 거점센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역시, 성동구!' 서울시 설문조사서 '가장 신뢰받는 자치구' 올라

선도적·적극적 행정으로 구민 신뢰도 견인...중앙정부·광역단체보다 구 신뢰도 높아

서울 성동구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민 신뢰도 1위를 기록했다.

4년 연속 민원서비스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최상위(2020년 말 기준) 달성 등 성동구의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행정서비스가 구민의 신뢰를 얻는데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넉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내 기관신뢰도 항목에 따르면 성동구에 대한 구민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5.37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25개 자치구 평균 점수는 5.0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 구민들이 중앙정부(4.99점)와 광역지방정부(5.23점)보다 구에 더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구민의 두터운 신뢰는 성동구의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그 동안 성동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기에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현장 대면업무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해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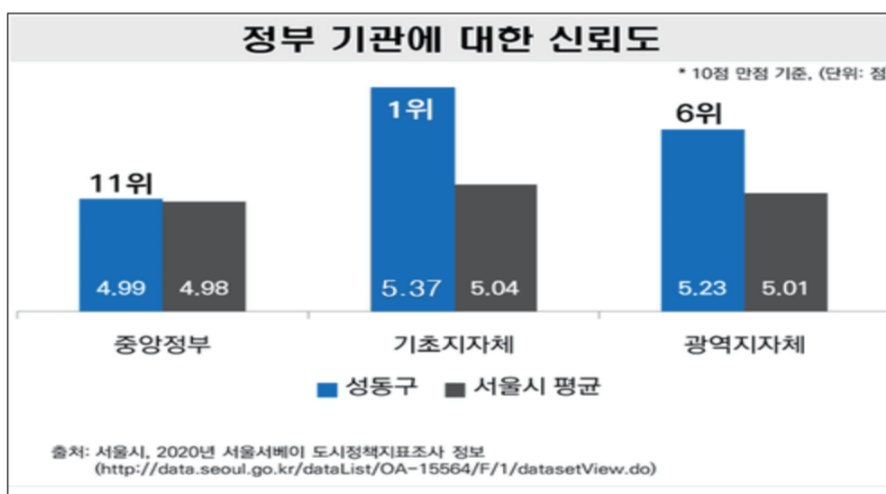
근 국회 법제화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기술을 집약한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추진한 '안전한 어린이 등하길 만들기 사업' 등으로 최근 3년간 25개 자치구 가운데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자치구가 됐다.

이 같은 적극행정의 결과로, 성동구는 지난 2020년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580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전국 자치구 가운데 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성동구는 2020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달성, 명실상부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2021년 3월 기준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율은 83.4%로, 특히 경제 분야와 안전 분야에서는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성동구의 행정력은 위



기마다 빛을 발했다. 지난해 3월 이른바 '마스크 대란' 당시에는 빠르게 KF94 마스크를 확보해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구민들에게 배부했으며, 서울시 최초로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 비접촉식 모바일 전자명부를 도입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선보였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서울시 '호지역점중센터 설치 자치구'에 선정, 서울시 내 설치되는 지역 점중센터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불어 활기찬 성동'

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장 구민의 삶 가까이에 닿아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구민의 신뢰가 행정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처음으로 조사된 신뢰도 평가에서 성동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달성한 것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어 "안주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더욱 두터운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원/기자

마포구, 공방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해드려요

마포구 공방지원 프로그램 2차 모집

공방의 숲은 마포구 각 공방의 장소성과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희망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료비, 홍보비,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모집에 신청했던 [공방의 숲]에는 총 15개의 공방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업비의 활발한 참여와 긍정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2차 [공방의 숲]을 통해 함께 마포구민의 특색 있는 공방 문화를 활발하게 만들어 갈 공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마포구는 지역 내 공방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및 공방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의 수강료 지원사업 [공방의 숲]의 참여자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주관하고 (사)일상예술창작센터가 운영하는 공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난 2월에 1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5개소의 공방을 선정하고 1개소 당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공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각 공방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에 도움을 줬다.

특히, 수공예품 중심으로 이뤄지는 프리마켓 행사의 개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위축된 수공예품 창작자 및 공방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공방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방을 이용하는 구민에게는 수강료 지원으로 공예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선정 규모를 확대해 총 25개소의 공방을 모집할 예정이며 1개소 당 사업비 100만원을 직

접 지원받게 된다.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 예산 항목은 ▲공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프로그램 참여료 희망하는 자의 수강료 ▲공방 홍보비 등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모일 기준(2021.4.14자) 마포구에 공방을 운영 중인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지원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마포공예센터 전자메일로 5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마포공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공방을 선정하게 되며 5월 중 마포공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공방이 공지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에 소재한 300여개소의 공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공예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 공방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공예 체험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순/기자

5월 부부의 날 기념, '나의 신랑, 나의 신부'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부의 날 기념행사 진행

금천구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기념행사 '나의 신랑, 나의 신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의 신랑, 나의 신부'는 금천구 내 결혼 25주년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리마인드 웨딩앨범지를 통해 잊고 지냈던 부부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부부간의 소통 및 친밀감 향상을 위해 '리마인드 사랑문답', '리마인드 원예활동', '리마인드 웨딩 촬영', '리마인드 축하 캘린더'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를 희망하는 부부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문자, '나의신랑, 나의신부 신청합니다'로 신청할 수 있다. 30쌍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된 부부는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 부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받아볼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부부간의 관계와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평안하고 따뜻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성/기자

나의 신랑, 나의 신부

대상 : 금천구내 결혼 25주년 이상 부부 30쌍 (신청순)

신청일정 : 2021. 5. 10 (월) 09:00 ~ 5. 12 (수) 18:00

진행일정 : 2021. 5. 17 (월) ~ 5. 22 (토)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문자 신청 (010-3180-7743)

문의사항 : 02) 803-7747

동작구, 독거어르신을 위한 나눔행사 실시... 인기 유튜버 쓰양 등 참여

강화군, 최고품질 강화섬쌀 품년기원 모내기

어버이날을 맞아 동작구자원봉사센터에서 나눔 행사 열어... 쓰양 및 자원봉사자 등 30여명 참여

유천호 강화군수 모내기 시연 및 농가 격려

동작구가 어버이날을 앞둔 지난 6일 '동작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관내 독거어르신 50명에게 반려식물 키트와 건강식품(홍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 행사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동작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배치 및 행사 장소 등을 협조해 개최하였다.

어버이날을 맞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을 제공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서적 소외감 등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마련했으며, 중앙자원봉사센터 홍보대사인 유튜버 쓰양의 후원으로 자원봉사자 30여명과 함께 어르신에게 전해드릴 키트 등을 제작·포장한 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으로 택배로 직접 방문



하어 전달을 마쳤다. 나눔 행사를 마친 쓰양과 자원봉

사자들은 "어버이날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 내용은 동작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업로드되며,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제고로 더 많은 사람들의 봉사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은 "어버이날을 기념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에 제약이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가슴이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쓰양은 구독자 33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지난 2019년에는 대한민국 자원봉사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최만식/기자



유천호 강화군수는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6일 교동면 고구리 들녘에서 모내기 시연을 하고 품년농사를 기원했다.

이날 유 군수는 '최고품질 벼' 품종인 참드림, 알찬미, 미소미, 청운 등 4개 품종을 이앙했다. '최고품질 벼'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벼 품종들 가운데 밥맛, 외관품질, 도정특성, 내병충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 벼 품종이다. 군은 강화섬쌀의 안정적 생산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추경, 고시히카리 등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삼광 등 일부 품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연 품종을 다양화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섬쌀은 대한

김종남/기자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예비문화도시사업 '생태탐구프로그램 시민LAB'으로 협력 시작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은 지난 6일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협력해 서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연계 및 공동 협력·진행 ▲전문분야의 인적, 물적, 프로그램, 정보 등의 자원 교류, 협력, 공동 진행에 관한 사항 ▲상호 컨설팅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은 우선 예비문화도시사업 '서구 생태탐구프로그램 시민LAB'을 협력해 추진한다. '서구 생태탐구프로그램 시민LAB'은 지역의 생태환경을 조사·연구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시민활동가를 모집해 지역주민과 함께 서구만의 생태환경 의제를 도출하는 사업이다.

재단관계자는 "'생태탐구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과 연계 협력을 통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남동구-가천대학교-LG유플러스, 비대면 돌봄 협력체계 구축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비대면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인천시 남동구와 가천대학교, LG유플러스가 고령자와 치매환자 등을 위한 비대면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에 힘을 합쳤다.

남동구는 6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가천대학교, LG유플러스 등과 IC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여파로 만성질환, 홀몸노인 등을 위한 대면 돌봄 서비스가 제한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LG유플러스는 고령자의 건강상태와 돌봄 콘텐츠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가천대는 학문적 연구를 통한 콘텐츠 개발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구는 ▲건강·안전·안

심 ▲여가·돌봄 ▲수면·정서 ▲치매 등 4가지 영역에서 사물인터넷(IoT)기기를 통한 사용자 모니터링과 비대면 중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거동불편자의 침대에 레이더 센서를 달아 낙상사고 발생 시 응급호출을 할 수 있으며, 고령인구의 인지기력 촉진을 위한 게임, 오디오북 등 시니어 특화 콘텐츠를 제공해 우울감, 외로움 지수 등을 관리한다.

이강호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증진사업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원/기자

작지만 강하다! 구로구, 거점 작은도서관 4곳 지정

맞춤형 강의, 마을사서 역량강화 교육 ... 그림책 구입비, 카드출력기, 책 소독기 등도 지원

구로구가 작은도서관 역량강화에 나섰다.

구로구는 "관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4곳을 거점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거점 작은도서관은 숲속, 그래그래, 돌레길, 흥부네 그림책 작은도서관 등 4곳이다. 거점 작은도서관은 총 87개의 관내 작은도서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맞춤형 교육, 강의 진행시 교육 장소로도 활용된다.

구로구는 작은도서관 역량강화를 위해 거점 작은도서관 지정식과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달 27일에는 거점 작은도서관 4개소 온라인 지정식을 가졌다. 이성 구청장 격려사, 거점 작은도서관 현판 전달 등이 영상으로

진행했다. 이어 작가 장광명이 강사로 나서 '지역 공동체에서의 도서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펼쳤다.

6일에는 작가 백유연이 '도서관 지역 활성화 방안 및 그림책 관련 이야기'에 대해 흥부네 그림책 작은도서관에서 강의했다.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지식을 갖춘 관장,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마을사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된다.

교육은 거점 작은도서관에서 5월부터 6월까지 주 2회, 총 12강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도 이뤄진다.

특성화 도서관인 흥부네 그림책 작은도서관에는 그림책 구입비가, 꿈터, 별빛마을, 그래그래, 숲속, 마



중물 작은도서관 등 5개소에는 상호대차 업무에 필요한 카드출력기 및 책 소독기가 지원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이 만드는, 주민이 가고 싶은 작은도서관이 되길 기대한다"며 "작은도서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생/기자

인천시, 플렉스 제로(PLEX ZERO) 캠페인 진행

인천광역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동참으로 이뤄지는 플렉스제로(PLEX ZERO : Plastic Flex Zero) 캠페인을 진행, 7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렉스제로(PLEX ZERO)'란 자신의 소비를 과시하는 플렉스(flex) 문화에서 자유로워져 일상 속에서 지나치게 낭비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의미를 담아 플라스틱과 플렉스

의 합성어인 플렉스(plex)에 제로(zer)를 붙였다.

본 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모은 티끌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굿즈로 제작해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티끌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하는 경험을 통해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까지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시작됐다.

5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인천시 자원순환 SNS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신청받으며 100명의 참여자를 선발한다.

참여자들이 수거 가이드에 따라 모은 플라스틱을 기간내 수거 거점에 전달하면 플라스틱은 인하대학교 자원순환 동아리 지원금의 지원을 통해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쳐게 된다.

모아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병의 라벨

및 병목고리를 제거할 수 있는 자원순환 굿즈 플래닛 스티커로 재탄생해 플라스틱을 모아준 참여자에게 되돌아간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에서 자원순환이 지속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인하대학교 자원

순환 동아리 지구인박람회 남동구 관내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샵은 인천시 내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본 캠페인의 시연과 진행된다. 시연에서는 인천시 내 기업 및 상점들과 협업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티끌 플라스틱 수거 거점을 다수 마련, 자원순환을 더욱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장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즐겁게 자원순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개개인 생활 속에 자원순환 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스며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에 주민커뮤니티사업 '문화예술활동' 거점 공간 조성

소방도로 개설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잔여지 활용해 조성

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에 주민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거점 공간은 수원시가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잔여지(팔달구 매산로1가 114-19 일원)를 활용해 조성한다. 기존 건축물 1개 동을 고쳐짓는다. 5월 중 실시시설 계약역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거점 공간의 활용·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거점 공간 조성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6일 고등동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으로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상임대표를 선출했다. 시민단체 회원, 수원시정연구위원 연구위원, 김미경 수원시의회 의원, 조남철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등이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 상권활성화·문화예술·도시재생·디자인·건축재생·여성인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거점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성매매 집결지 기록화 사업', '주민 커뮤니티사업' 등을 거점 공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매달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긴급하게 논의할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전시·벽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가로정비추진단 관계자는 "협의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거점 공간의 조성·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둡고 폐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고, 시민에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9년 1월 '수원역가로 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성매매 집결지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성매매 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를 조성하고,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개설될 예정이다.

현재 지장물(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시설) 철거하고 있고,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포천시, 제1회 포천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E스포츠 게임대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29일 포천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2021년 제1회 포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E스포츠 게임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 E스포츠 게임대회는 리그 오브레전드, 카트라이더 2종목을 진행하며, 종목별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 청소년은 트로피 및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결승전에는 특별 손님으로 MC허준이 게임 해설을 진행하며, 포천시 청소년센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한다.

시 관계자는 "포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 감성 증진 및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행운축제'라는 주제로 연간 총 5회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의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청소년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3회, '대면(거점형) 청소년



어울림마당' 2회를 혼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경기도 단체관 참가 12개사, 서울 국제가구전(SOFURN)서 21억 규모 상담 추진

도내 가구기업 12개사 가정용·사무용 가구 전시, 마케팅 및 바이어 상담 집중지원

경기도내 가구기업 12개사가 국내 대표 프리미엄 가구전시회에서 21억9,200만 원 상당의 상담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 '2021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SOFURN 2020)'에서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올해 2번째 개최한 소편은 '가구가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다'를 주제로 우수한 품질, 최신 디자인의 가구와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 국내외 가구업체 130개사가 참가했고 3만6,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소편에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 코로나19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가구기업에게 마케팅 지원을 실시했다.

올해 경기도 단체관에는 도내 가구기업 12개사의 우수한 가정용·사무용 가구를 전시하여 바이어 및 참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 21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향후 21억9,200만 원 상당의 성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도내 가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사 MD조정 상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상담을 지원하는 등 전시회 참가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고양시에 소재한 '윤어고노믹스(Yoon Ergonomics)'는 혁신적 기술의 스마트데스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이번 MD조정 상담회를 통해 대기업과의 제휴 및 대형유통망 입점 등을 제의 받았다. 특히 국내 대형유통사 A사와 3억 원의 발주계약 추진이 기대된다.

경도영 경제기획관은 "최근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제약되며, 가구 등 홈-퍼니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기회에 도내 우수 가구기업의 제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과원은 경기도 특



화산업인 가구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코펜(KOFURN) 전시회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하여 도내 유망 가구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수기자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여성의 꿈을 응원하는 '나비마켓' 야외판매 행사 진행

6월 9일, 9월 8일에도 진행 예정

과천시 여성비전센터는 6일, 중앙공원 바닥분수대 일대에서 '나비마켓' 야외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여성비전센터의 '나비마켓'은 나를 비약(飛躍)시키는 마켓이란 뜻으로, 취미로 공예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여성들을 위해 특색 있는 수공예품 시장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공예인이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매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연 4회 야외판매 행사와 여성비전센터 5층 열린마당에서 상시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중앙공원 야외판매 행사는 수공예품을 만드는 지역여성으로 구성된 10개 팀이 참여하여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 및 전시하며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코로나19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나비마켓 회장 사회준씨는 "1년여 만에 어렵게 마련된 이번 야외판매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판매금의 10%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하게 되어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신준옥 센터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톡톡 튀는 감성 아이디어로 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 김중천 과천시장은 "시민들이 멋진 창작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고, 시에서도 앞으로 지역 여성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나비마켓은 과천시민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6월 9일, 9월 8일에 중앙공원에서 야외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용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대구시,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적극행정분야 '국적을 넘어 하나가 된 대구소방(수성소방서)' 최우수 선정

“이제 대구시 적극행정 통한 혁신은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6일 유튜브 대구시 정뉴스 채널을 통해 '2021년 상반기 시정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 본청과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한 협업을 통한 시정혁신 사례, 창의적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67건 사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우수사례 10건이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시정혁신 협업분야 최우수에는 '대구 제1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중구 보건소)',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에는 언어통역 지원을 통해 외국인 불편을 해소한 '국적을 넘어 하나가 된 대구소방(수성소방서)'가 선정됐다.

시정혁신 협업분야 우수에는 경찰, 소방, 교통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달서구 안전도시과)', 적극행정 우수분야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웃음, 힐링 중

심의 영상을 선보인 '대구시 홍보에 중독되다! 이게 며신 129 (홍보브랜드 담당관)'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그간 시정혁신과 적극행정으로 나누어서 개최하던 행사를 처음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동 개최했고 시, 구·군, 공사·공단에서 출자·출연기관까지 전 공공기관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했으며,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도 따라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시민과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우수사례 발표뿐만 아니라 참여 기관 직원들의 응원 영상, 실천다짐 영상을 통해 직원들의 깜짝 아이디어와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심사위원은 전문가와 공개 모집한 시민평가단으로 구성했으며, 사전에 실시한 시민소통 사이트인 '토크대구'의 투표점수와 본선 심사위원의 실시간 심사 결과를 합산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 마지막에는 혁신과 적극



행정의 실천을 다짐하는 '소통하는 시정혁신, 모두함께 적극행정!!'라는 슬로건을 외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한편, 대구시는 2020년 연말 정부에서 실시한 지자체 평가에서 혁신평가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협업과 적극행정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여 혁신으로 앞서는 대구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통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혁신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경상북도 약 바르게 알기 교육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 UP

경북도, 경북약사회와 함께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실시



경상북도는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교육을 5.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등 의약품 구입이 용이해지고 있어 성인에 비해 의약품 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약품 오·남용 및 중독성 식품 등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 및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더 빠른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경북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넵넵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 교육청, 경상북도약사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

영일)가 수행기관이 되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약사회 소속 전문가가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약 바르게 알기 교육은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약물 부작용 대처법, 고카페인 약물과 항생제·진통제 오·남용의 폐해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영천시 '2022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 국비 60억 확보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한 물류센서부품 개발

영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2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사업인 '저전력 지능형 IoT 물류부품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오는 2022~2024년까지 3년간 총 186억원(국비60, 지방비119, 민자7)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대구대 등 산·학·연 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저전력 지능형 IoT 물류 부품이란 생활 속 버려지는 에너지를 하베스팅(harvesting, 수확)기술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변환 에너지를 무전원 독립형 자가 충전 물류부품(센서)에 공급하는 부품을 의미한다. 즉, 이는 주변 환경의 모든 에너지 원으로부터 장치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스스로 수집·충전함으로써 외부전원이 필요 없는 무선충전플랫폼인 것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무전원 독립형 자가 충전 시스템을 가진 물류 부품을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 물류 분야에 적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시 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다시 부품센터의 환경정보 수집 및 전송

모듈로 전송하는 체계로 물류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천시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상북도, 대구대 등과 협업하여 왔다. 2020년 3월부터는 영천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에너지하베스팅산업생태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와 각종 기술세미나 과정을 거쳐 국내 최초로 '에너지하베스팅 기술 분류 체계'를 정립하여 체계적인 연구 개발과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도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하베스팅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IoT 기술 적용과 물류 분야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영천시는 이와 별도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하베스팅 기술 실증을 위한 열전, 진동, 압전 관련 플랫폼 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 가능성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 경북도와 함께 대구대학교에 지역 산업 연계형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번 최종 선정은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전지차, 수소차,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편중되어 아직 초기 연구개발 단계로 산업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해 향후 초연결시대에 핵심이 될 IoT 부품의 전력을 공급할 이 분야에 경북 영천시가 선정하겠다는 영천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그간 개발되고 축적된 사물인터넷(IoT) 관련 연구 결과와 산·학·연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혁신기관들이 개발한 신기술이 지역 기업에 이식되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의 물류 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새 생명 탄생으로 활기 찾다

진양호동물원에서 서틀랜드 포니와 토끼, 라쿤 등 새 생명이 잇따라 태어나며 동물원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22일에 서틀랜드 포니 '니니'가 새끼(수컷)를 출산했다. 포니의 임신기간은 337일로 사람보다 길고 초반에는 임신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어미는 초산에도 불구하고 첫 수유를 하고 걷는 법을 알려주는 등 모성 본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새끼 포니는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물원은 조만간 새끼 포니에게 이름을 붙여줄 예정이다.

또한, 5월 2일에는 라쿤 2마리와 토끼 4마리가 태어났다. 새끼는 어미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출산 직후 예민한 시기라 사육사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워 아직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 갓 태어난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육사들은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

이 밖에 염소, 사람앵무 등도 최근 새 생명을 탄생시켜 겹경사가 줄을 내고 있다. 동물원 관계자는 “새 식구가 탄생한 만큼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화하기 위해 사육환경개선은 물론 동물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생태정원 조성, 동물 환경 개선을 위한 이전 및 특화단지 조성 등을 구상 중에 있어, 단순한 전시 위주의 동물원이 아닌 종 보호와 보존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양호동물원은 지난 4월 19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임시휴장에 들어갔지만 관람객들을 다시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며, 동물원 환경 개선과 동물행동 풍부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포항지진 피해지원 확대, 특별법 시행령 개정 돌입!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산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 됐다.

포항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를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다시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논란이 되었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한도를 확대해 피해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써 공동주택의 동 수와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원한도로 인해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는 그동안 지진피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경상북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포항시의회(정해종 의장), 포항11.15축발진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 공동위원장)가 함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4월 이미 한차례 개정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자체 재원부담, '재심의', '순회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등의 피해주민 권익이 확대된 내용이 추가돼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차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



며, 지난 30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2차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2차 개정안은 특별히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시 입법예고 되었으며,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개인피해 신청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도 8월 말까지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고, 기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기현기자

청송군, 온라인으로 만나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청송군, 세계지질공원 등 연중 온라인 홍보 적극 나서

청송군이 포털사이트,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소통을 통해 '산소카페 청송군'과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청송읍읍골에서 즐기는 캠핑, 주산지의 사계절, 화산이 만든 주왕산의 단풍 등 청송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질학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모바일에 친숙한 MZ 세대를 대상으로 연중 지질공원을 홍보하며 잠재적 관광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식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는 청송 지질공원, 온택트 지질교육, 탐방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

영하는 등 청송 지질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를 확보할 전략이다.

특히 청송군은 온택트 지질교육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청송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강의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며, 강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건강, 힐링, 교육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트렌드에 대응하고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청송의 청정 자연과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부산시, 시민이 시민에게 보내는 안부 '잘 있나 프로젝트' 진행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일상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이 시민에게 보내는 안부, 잘 있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슬기로운 방콕 생활'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시민참여 프로젝트로, '시민이 시민에게 묻는 안부'를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시민들의 일상 영상을 모집한다.

부산시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SK브로드밴드 부산방송과 함께 올 연말까지 4회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차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출퇴근길 마주치는 소소한 즐거움부터 '집콕' 생활을 즐기

는 나만의 방법 등 평범한 일상을 담은 영상이면 된다. 1~5분 분량의 순수 창작 영상물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영상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창의성,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 제작비와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SK브로드밴드 부산방송, 부산시 유튜브채널 B공식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박준현 부산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안을 얻는 의미 외에도 코로나19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록물로서도 가치를 지닐 것이다"라며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광영기자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어버이날 주간행사 풍성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관장 이성애)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3~7일 어버이날 주간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효(孝) 사상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주간행사는 '사랑해효(孝), 감사해효(孝), 존경해효(孝)'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됐다.

종합복지관은 먼저 이 기간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꽃을 달아 드리고 선물 키트를 전달하며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어드렸다.

특히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선정된 13개 읍·면의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대상으로 실시간 줌(ZOOM)을 활용한 이벤트도 실시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하동 특산물 9



종의 담은 효(孝) 꾸러미와 하동여성단체협의회, 하동청년회의소 등이 후원한 선물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에게 축하의 시간을 선사했다.

또한 유튜브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이벤트 영상을 시청한 주민들

이 '어버이날' 행사를 지어 댓글로 남기게 하고 추첨을 통해 치킨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리고 철불사와 하동여성단체협

의회, 하동청년회의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연우회, 재진향우기업인 온새미로 등에서 풍성하고 따뜻한 협찬을 해 코로나19로 경직된 군민들에게 훈훈하고 웃음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했다.

이성애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많은 어르신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각계각층의 후원과 관심으로 뜻깊은 주간행사를 진행하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어버이날 주간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최광용기자

거창군 좋은이웃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거창군 거창읍은 7일 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과 연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게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대상 가구는 한부모 가정으로 이사 갈 집이 낡고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함에도 가구주의 건강이 좋지 못해 집을 수리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거창군 좋은이웃들은 흔쾌히 내려앉은 마루공사와 도배·장판 시공, 집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접수 지원 받은 가구주는 "집이 낡았지만 고칠 형편이 되지 못해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잘 살게 해주

서 정말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태정 거창읍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체계를 굳건히 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좋은이웃들은 평소 주택환경개선, 식료품·생필품 지원, 방역 지원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사천시,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도입

사천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심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작성 방식이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작성 등으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안심콜 출입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안심콜' 서비스 도입대상 시설은 음식점을 비롯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 3,000여 개소이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시설별로 부여된 지정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ARS 멘트와 함께 자동적으로 출입기록이 등록된다.

그동안 손으로 직접 쓰는 출입자 명부는 번거로움과 허위작성 그리고 연쇄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다. QR체크인 역시 단말기 구축에 따른 비용 발생과 모바일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안심콜 서비스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출입기록이 4주간 저장 후 자동 삭제돼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통 4,82원의 통신비가 드는데, 사천시에서 3개월간 안심콜 통화료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향후 안심콜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지원기간 및 대상시설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확진자 발생시 빠른 역학조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관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및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전북 교육청 “올바른 자녀양육, 부모가 함께 참여해요”

전북 교육청, 5~11월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아버지교육 운영

전라북도교육청이 올해도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교육을 지속한다.

7일 도교육청은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가족과 함께하는 아버지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버지교육은 자녀 양육에 부모가 함께 참여해 올바른 양육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구성원 간 친밀감과 유대관계를 쌓아간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첫 교육은 오는 22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중학교 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꽃누르미(압화) 체험이다. 특히 이번 교육의 주제는 ‘꽃임에 담은 가족사랑’으로 세월호 유가족 학부모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자녀·가족에게 편지를 쓰기, 꽃임에 마음을 담

아 가족역사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공감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교육 참여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6월에는 초등 저학년용 대상으로 한 치즈만들기 체험과 동학운동 발자취 역사탐방이 각각 12일과 19일에 예정돼 있다.

이어 7월에는 고등학생 대상 도자기 체험과 중학생 대상 U&I학습유형 검사와 진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9월에는 근대문화역사탐방, 10월 말뚝장 체험과 안전체험, 11월 목공 체험 등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담당자는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교육은 전북교육청 학부모교육을 대표하는



교육 중 하나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라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에게 콩나물재배키트 제공

진안군치매안심센터가 시니어 학습지 홈-스쿨링을 수료한 치매환자에게 인지재활을 위한 콩나물 재배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 학습지 홈-스쿨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치매환자의 사회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인지능력 저하 및 무력감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홈-스쿨링 수료자들은 주 1회 가정방문을 통해 개인별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 활동과 주간 과제 활동을 8주간 진행하였으며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어르신에게 콩나물 재배키트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콩나물 재배키트는 재배용기, 사용설명서, 콩 500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콩나물은 성장속도가 빨라 5~7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재배 방법도 쉬운 인지가

능이 저하된 치매어르신도 손쉽게 재배할 수 있으며 하루 1번 물을 줘야하기 때문에 기억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콩나물을 보면서 치매어르신들이 일상의 무료함을 덜고, 즐거움과 성취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콩나물 재배키트를 제공받은 수료자들은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니 기뻐하기도 하고,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콩나물로 가족들과 반찬을 만들어 먹으니 보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진안군치매안심센터장(이임옥)은 “치매어르신들이 콩나물을 키우면서 어린 시절 추억도 회상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콩나물 수확의 기쁨을 통해 코로나19 불투명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종철/이희철/기자

2022년 4월 입주 예정 오룡동 금광지구 행복주택(98세대) 오는 8월 모집

군산시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행복주택 입주자를 오는 8월에 모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오룡동 금광공원 맞은편에 위치하는 금광지구 행복주택은 총 사업비 198억을 투입해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구도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 98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사업계획 승인 후 4월에 착공, 오는 22.4월 입주시기를 맞춰 오는 8월에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세대와 취약·노인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 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이번 금광지구 행복주택은 21㎡(11평) 34호, 29㎡(14평) 30호, 36㎡(17평) 34호로 총 98호이다.

특히 우선공급의 기준을 대폭 상향해 군산시 거주민이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어 군산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이다.

이기간 도시재생과장은 “오래전부

터 주거안정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한 금광지구 행복주택이 ‘21년도에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금광지구 행복주택으로 고령자 및 수급자, 젊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군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재생을 체감하는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태/기자

영암군 5월 가정의 달, '기찬들 영암몰'과 함께하세요

신규회원가입, 포토후기, 적립금 증정, 특가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영암군은 온라인 쇼핑몰인 '기찬들 영암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찬들 영암몰에서는 지난 5월 3일부터 농축산물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원데이 추가 행사로 5월 10일에는 쌀, 5월 17일에는 고구마를 3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신규 회원가입 모든 고객에게 적립금 3천원을, 포토후기를 남긴 고객에 한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선정하여 총 15명에게 1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며 최우수 포토후기 남긴 고객 10명을 선정하여 무화과 쌀빵 1박스 증정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기찬들 영암몰'에서 지난 4월 개관 이벤트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연계하여 영암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을 펼친 결과 온라인 판매 누적 매출액은 7억5천만원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암의 농특산물인 달마지 쌀 골드, 고구마, 매력한우, 무화과 쌀빵 등이 기찬들 영암몰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며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입점품목을 늘려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곡성군, 5월 31일까지 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견생조각전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곡성군 옥과면 옥과초등학교 앞 천변에서 곡성군과 크라운해태가 함께하는 51회 견생조각전이 진행된다.

‘견생조각전(見生彫刻展)’은 ‘보편 생명이 생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야외 조각전이다. 현대조각의 지평 확대와 문화공헌을 위해 크라운해태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전시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9회째 운영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크라운해태 아트밸리 소속작가들과 광주 전남 작가들의 대형 야외 조각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천변이라는 자연과 일상의 공간에 조각작품이 어우러지자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곡성군은 지역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여 새로운 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견생조각전이 군민에게는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가 되고, 예술가에게는 창작활동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시회의 취지를 강조했다.

견생조각전은 옥과 천변 전시가 끝난 후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곡성을 곡성전 일대로 자리를 옮겨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견생조각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미래혁신과 경관디자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상홍/기자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낮춘다!

대출이자 전액 지원...6월 4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정읍시가 대학교 재(휴)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7년 이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다.

단, 국가와 지자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학자금 중 2021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이다. 생활비 대출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다.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에 방문해 신청서

와 재(휴)학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와 재학 및 졸업 여부, 대출 정보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0명(250건)에게 총 400만원을 지원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최하은/기자



진도군, 만 40세이상 주민 무료 간염 검사 실시

진도군 보건소가 간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만40세 이상 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B형·C형 간염 검사를 실시한다.

B형·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암 발생의 가장 주요한 대표적 위험인자로 간암 발병률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간염 검사를 원하는 주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진도군 보건소 1층 임상 검사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검사 실시 후 유소견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의원 의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간암 검진대상

자로 등록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또 B형 간염 항체 미형성자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안내하며, 간암 고위험군은 식습관 개선과 개인위생관리 등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병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조기검진으로 간암 발생을 감소와 자가 건강 관리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호/기자



광주다운 도시·건축 실현 위한 첫발 내딛어



전라남도, 코로나 예방접종 공공콜센터로 문의하세요

6일부터 본격 운영...철차접종기관 등 24시간 안내

전라남도는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는 지난 4월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문의가 늘어날 것에 대비,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날부터 본격 운영한다.

콜센터에서는 ▲예방접종 절차 ▲예약 방법 및 접종기관 안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연말까지 휴무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전문 상담원 6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22개 시군에서도 코로나19 콜센터를 개소해 전문 상담원 72명이 백신 접종에 대한 문의 및 6일부터 실시

하는 사전 예약을 지원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콜센터 운영으로 24시간 도민 곁을 지키면서 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접종 후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밤부터 이날까지 여수 6명, 순천 1명, 고흥 2명 등 9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1천115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천32명, 해외유입은 83명이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 5천765명 중 5만 6천620명(86.1%), 2분기 대상자 27만 27명 중 15만 6천92명(57.8%)이 접종을 완료해 총 21만 2천712명이다.

김영안기자

전남도, 제과제품 중국 첫 수출 성사

전라남도는 7일 나주 ㈜광일식품이 생산한 바게트 과자 제품 중국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식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산 제과 제품으로는 중국 첫 수출이다.

이번 수출 물량은 컨테이너 1개로 7천 달러어치다. 앞으로 2년간 중국 바이어가 3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제과류 제품의 중국 수출 성사를 위해 상하이사무소를 적극 활용했다. 한국산 제과류 제품 수입을 원하는 중국 바이어와 첫 상담부터 도내 제과류 생산업체 물색, 중국 바이어와 도내 업체 간 화상상담 주선, 수출입 경험이 없는 양측 간 조율 등 전후 지원했다.

전남도는 또 상하이사무소를 통

해 바게트 과자에 대한 현지 시장 조사를 했다. 같은 중화권인 대만 시장에 유통 중인 한국산 바게트 과자의 높은 선호도를 확인하고, 중국 시장에서도 가능성을 예상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이산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전남 수출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많지만 해외 사무소를 적극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중국 상하이, 일본 오사카,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베트남 호찌민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류, 수출, 투자유치, 관광홍보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김영안기자

광주광역시 6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을 위한 매뉴얼을 발표하고 광주다운 도시·건축 실현 방안을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30일 새로운 광주 도시·건축의 비전과 광주다운 도시·건축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발표하고,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

매뉴얼은 광주시가 수립 중이거나 수립기로 한 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경관 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65개 법정·비법정계획, 조례, 지침, 정책연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건축선언이 추구하는 가치와 계획, 목표를 담은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총 10개 조문별로 계획목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사업, 추진체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추진 과제별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고, 특히 추진부서와 일정을 명시해 이행 책임 주체와 로드맵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 성과관리를 위해 시



민사회, 의회, 광주시가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건축정책위의 검토를 거쳐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날 매뉴얼과 함께 이행 선도 프로젝트로 ‘무등산 조망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지구상세계화를 통한 원도심 도시·건축 관리방안’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광주 도시·건축 선언과 매뉴얼은 도시와 건축을 통합한 가치체계가며,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실행과제, 로드맵까지 갖춘 실행력을 담보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이들 과제는 현재 광주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이번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종호 행정부시장은 “획일화된

아파트숲, 회색도시에서 벗어나 광주다운 도시건축과 시민들의 삶속에 녹여내야 한다”며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의 핵심가치를 선언문과 매뉴얼에 담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도시·건축 선언’은 삶의 질이 중시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24인)의 작업과 전문가협의체, 시민단체, 건축정책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전문과 10개 조문에는 광주가 가진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광주 정신을 도시·건축에 반영해 미래에 남기자는 약속을 담았다.

10개 조문은 ▲역사와 미래 ▲안전과 공존 ▲마을과 공동체 ▲교통과 도로 ▲경관과 조망 ▲녹지와 공원 ▲집과 건축 ▲공공시설과 공공건축 ▲공동주택과 주거 인프라 ▲공공성과 도시 행정으로 도시와 건축을 아우르는 선언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김덕윤기자

장평면, 어버이날 효(孝) 사랑 나눔 행사 개최

장흥군 장평면은 6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변영희, K-water 전남서남권지사과 함께 노인일자리 근로자, 장수어르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온정을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관내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과 부양이무자가 없거나 가족 간 왕래가 없는 독거노인, 노인일자리 근로자 등 500세대를 선정해 정성으로 직접 제작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며 위문품(식료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어버이날을 기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봉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카네이션 전달과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장평면 변영희(회장) 위두환(5백만 원),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지사장 정찬/5백만 원)에서 후원을 하며 따뜻함을 더했다.

안영진 장평면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움츠렸던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활짝 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여수시, 5월 가정의 달 맞아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여수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남에서 열두 번째 부부아너가 탄생했다고 7일 밝혔다.

그 주인공은 서순희 씨로 배우자인 김철희 대신기공 대표가 2016년 가입한 이후 5년 만에 부부 아너로 전남111호, 여수17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순희 씨가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사랑의 열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전남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날 행사는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동일 회장, 전남동부권 아너소사이어티 강재현, 우종완, 위재춘 회원, 김철희(㈜대신기공 대표이사)와 서순희 신규 회원이 참석했다.

서순희 씨가 기부한 성금은 여수시 돌봄이웃 복지사업비로 사용되어 더 밝은 세상을 여는 마중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순희 씨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변의 이웃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크게 들어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며



“따뜻한 가정의 달에 저희 부부가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해도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좋은 뜻을 품고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앞장서 주신 대신기공 대표님과 서순희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두 분이 품은 뜻대로 여수시민이 두 배로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으로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1억 원 기부를 약속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전남 아너소사이어티는 서순희 신규 아너회원을 포함해 전라남도 113명(여수 17명)이다.

이남출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羅州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 에너지산업 규제자유특구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 강소연구 개발특구

정선군 신동읍농공단지 입주업체 어린이날 후원물품 전달

신동읍 농공단지(예미 농공단지, 함백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제99회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지역의 아동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아동을 격려했다.

후원물품 전달 참여 업체는 모두 6개 업체로 정선드림(舊 푸른솔푸드, 대표 이명하)에서는 백태초코볼을, 하이원 베이커리에서는 빵을, ㈜채움에서는 석쇠불고기, 한성식품정선지점(대표 김순자)에서는 김치를, (주)큐홈에서는 핫도그를, 대영식품에서는 찜빵 및 만두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가온누리 돌봄센터와 더불어 이웃한 흥빛 지역아동센터, 별빛달빛 지역아동센터 등 3곳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하였다.

후원물품을 전달한 업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안타까워 제99회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지역 아동시설에 후원을 하게 되었으며,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며 정성을 모아 후원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후원받은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가정에서만 있는 아동들이 안타까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자체적으로 기획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지역업체에서 물품을 후원하여 행사가 더욱 뜻깊었고, 참여한 아동들도 맛있게 먹고 즐거워 하였다고 전하였다.

최근수/기자



강원도제1호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하세요

강원도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4.18.)됨에 따라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은「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법률」 제정(18.4.17.)으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시행(20.4.18.)되었으며, 각종 세부기준 등이 올해 3월에 최종 마련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간이 부여되어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받은 임시등급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받기 위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를 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후 강원도에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4명 이상(특급 1명, 고급이상 1명, 중급이상 2명)과 장비 21종(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관리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이 기대된다."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신규로 생기는 업종인 만큼 관심있으신 분은 강원도 제1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으로 등록하시길 바라며, 강원도와 시군은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태백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청년특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태백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청년특화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태백시'와 수행기관인 '강원랜드 희망재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취업과 창업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지역의 우수한 목재자원을 활용한 목공예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목공예 교육의 재정적 부담 경감, 전문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기업과 산업현장을 연결한 지역 내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이 본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목공 초급, 중급, 사범(마스터) 역량과정과 디자인 및 설계교육 과정이 있으며, 사회적경제 창업화와 취업 멘토링을 연

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목공예의 첨단화와 기능성, 문화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특화산업으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에

도 힘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취업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약정서 체결 후 이달 지원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최만식/기자



정선군, 군민 안전지킴이 다목적 CCTV 추가 설치

정선군은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향상을 위해 군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담당할 다목적 CCTV 3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정선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총 362개소 608대로 방범·불법주정차·어린이보호·재난·재해 예방 등 각 읍·면별로 규모에 맞게 고루 설치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통합 관제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하는 다목적 CCTV는 정선경찰서와 협의하여 정선을 3대를 비롯해 8개 읍·면 주요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어린이는 물론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강력범죄 예방과 치안 및 생활안전 유지를 위한 신속한 대처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은 다목적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정선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정선군, 군민 안전지킴이 다목적 CCTV 추가 설치

정선군은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향상을 위해 군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담당할 다목적 CCTV 3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정선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총 362개소 608대로 방범·불법주정차·어린이보호·재난·재해 예방 등 각 읍·면별로 규모에 맞게 고루 설치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통합 관제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하는 다목적 CCTV는 정선경찰서와 협의하여 정선을

3대를 비롯해 8개 읍·면 주요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어린이는 물론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강력범죄 예방과 치안 및 생활안전 유지를 위한 신속한 대처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은 다목적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정선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업무협약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일 평창 우체국과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1년에 보험료 1만원을 납입하면 재해임원비, 재해 수술비, 재해사망 유족 위로금을 보장해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는 보험으로 1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150여명에게 반올림 가게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평창우체국은 보험가입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지영우 민간위원장은 "보험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전해 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고 전했다.

이용배 공공위원장은 "이번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 및 재해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발굴해 따뜻한 평창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춘천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일경험수련생 선발

춘천시정부가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일경험수련생을 선발한다.

이번 일경험수련생 모집은 행안부 주관 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지원 뉴딜사업에 선정된 공모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선발인원은 운영부서별로 시청 대중교통과 10명(교통시설 데이터 수집 및 현장 실측), 티디아이 30명(관광지 및 상권 이용데이터 수집), 카탈로닉스 6명(수도급수DB 데이터 가공)이다.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춘천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은 오는 14일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를 접속해 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온라인 면접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기본 역량교육과 현장 수련을 거친 후 근무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7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5개월간이다.

최재은/기자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 개최

삼척시의회는 5월 7일 삼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삼척시의회 어린이 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는 2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분 자유발언,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진행됐다.

의장단 선출은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결정했다.

후보로 나선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은 정견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동료 의원들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의장에는 김남훈(삼일고 3학년), 부의장에는 김태균(삼척중 3학년)과 홍

석빈(정라초 6학년)이 선출되었으며 1년 동안 삼척시의회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여 활동하게 된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친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은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이해 교육,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아동 권리 증진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충청남도, 대전·세종·충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선정

5년간 3430억 원 투입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창업활성화

충청남도 대전·세종시와 공동으로 신청한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등 혁신기관이 함께 모여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취업·창업 및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향후 5년간 국비 2400억 원, 지방비 1030억 원 등 총 343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연합 복수형 플랫폼 선정에 두고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이 경합을 벌인 결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공동 지역혁신모델 제시 그리고 대학 및 참여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이 중점 평가됐다.

충청남도 대전·세종시는 충남의 모빌리티 제조 인프라, 대전의 모



빌리티 연구·개발(R&D) 역량, 세종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 등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혁신 플랫폼에는 총괄대학인 충남대와 중심대학인 공주대를 비롯한 대전·세종·충남 소재 24개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 등 144개 혁신기관이 참여한다.

사업 목표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핵심 분야는 모빌리티 소재부품 장비와 모빌리티 ICT의 2개 분야에 △친환경 동력시스템 △지능형 전장제어시스템 △첨단센서용합디바이스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자율주행서비스 △스마트 휴먼인터페이스 △차세대 통신융합 △SW/AI 융합플랫폼 등 8개 요소로 구성된다.

핵심 분야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혁신 플랫폼의 성과 목표는 대학 간 공동 학사조직인 DSC(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모빌리티 분야 혁신인재의 연간 3000명 취업과 지역착근 30% 달성 등 청년 정주 환경을 구축한다.

양승조 지사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지역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대전·세종시가 하나가 되어 결실을 거뭇다"며 "사업 준비를 총괄한 김학민 총괄센터장을 비롯, 충남대·공주대 등 24개 대학과 테크노파크 등 대전·세종·충남의 혁신기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지역혁신 플랫폼 계획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충청대학교와 업무협약체결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충청대학교는 세종시 보육발전을 위하여 5월 6일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 간의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약속하며, 이번 협약은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활동, 교수 및 학생의 현장 참여를 통한 산학협력, 위탁교육 및 협동강의를 통한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 인력 및 정보의 상호 이용 등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간의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 황미영 학과장은 "양 기관이 서로 협력과 공

유를 통해 지역사회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과 부모와 가족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임이랑 센터장은 "우수한 영유아 교사 양성 인프라를 공유하고, 우리 지역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 황미영 학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이랑 센터장, 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 육태우 회장,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 이은정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최재은/기자



보령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즐기는 제24회 보령머드축제 개최 결정

6일 보령축제관광재단 이사회 열어 축제 개최계획 등 협의

제24회 보령머드축제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계별 개최안을 마련하고 이달말까지 최종 상황 판단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 개최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지난 6일 보령머드박물관에서 김동일 이사장과 보령축제관광재단 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24회 보령머드축제는 '온오프'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온라인 콘텐츠와 오프라인 콘텐츠를 이원 생중계로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시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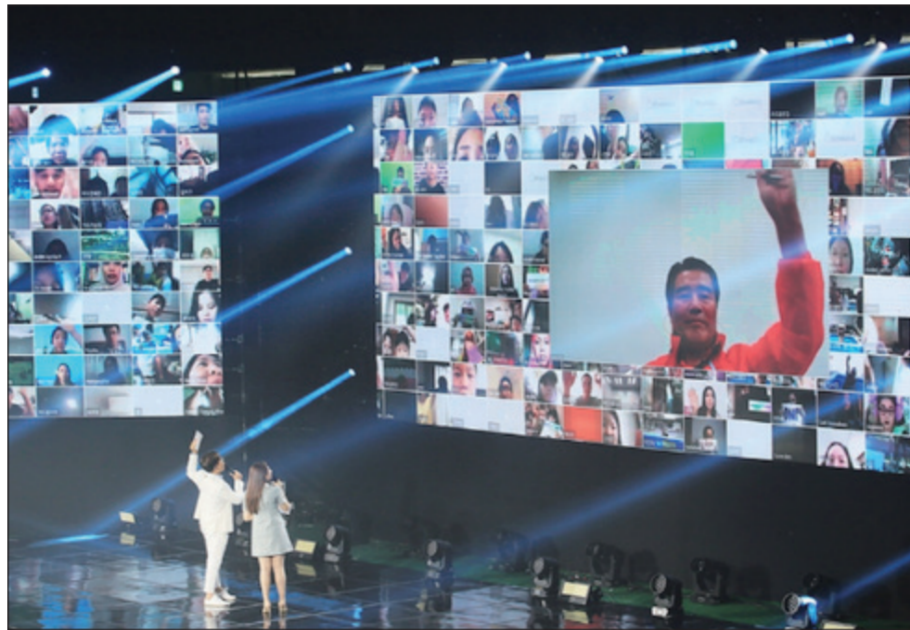
이를 통해 단순한 온라인 축제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보령의 관광자

원과 먹거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프라인 콘텐츠 운영은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맞는 유동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수욕장 입장시 체온스터커 체크 외에도 체험 전 발열체크기 통과, 체험시설 수시 소독, 시간대별 체험인원 제한 등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시스템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25회 보령머드축제 박람회장 내 개최 방안, 2021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정관 일부 개정, 임원추천위원회 재단 추천위원 선임을 검토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온·오프라인 축제로 결정된 만큼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전



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개최한 보령머드축제가 언택트 축제의 선제적 모델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며 "박

람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 축제가 박람회의 전초전으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기에 안전하고 활력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확대...산후관리 편의UP

충남 서산시가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서 150%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한다.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확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을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2021년 5월 22일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상자에게는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산모의 감염 예방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서비스를 5일에서 25

일까지 지원한다. 지원 비용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서산시보건소 주민등록등본과 출산예정일 증명서(산모수첩 등)를 지참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용을 서산시 건강증진과장은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며 "관내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아이 양육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충북도, 이주민·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7일(14시)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이주민·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북도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중원대학교 정효정 교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손은성 공동대표, 충북대학교 서선영 교수, 한국폴리텍 유기욱 다문화교육과장, 충청북도교육청 이범모 학교자치과장, 지역아동센터충북지원단 이창희 단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정승희 대표, 충북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석수 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이주민·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손은성 공동대표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손은성 공동대표는 도내 다문화가정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다문화가정 특수성과 어려움을 소개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다국어 서비스 강화 등 세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이주민·다문화 가정 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이주민·다문화가정의 특

성을 고려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및 환경조성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도민 모두 힘든 시기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가정학습, 온라인수업 등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자녀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는 금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1.3% 증액한 87억원을 편성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최인식/기자



천안시, 특산물 '하늘그린 멜론' 첫 수확

이필영 씨 비닐하우스에서 평균보다 20여일 빠르게 출하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천안시를 대표하는 특작목인 '하늘그린 멜론'이 지난 6일 첫 수확 후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수신면의 천안멜론농촌지도자회 이필영 씨(70세)는 비닐하우스에서 지난 2월 초순경에 아주심기한 후 가온(加溫)재배를 통한 멜론을 평균 재배보다 약 20여일 빠르게 출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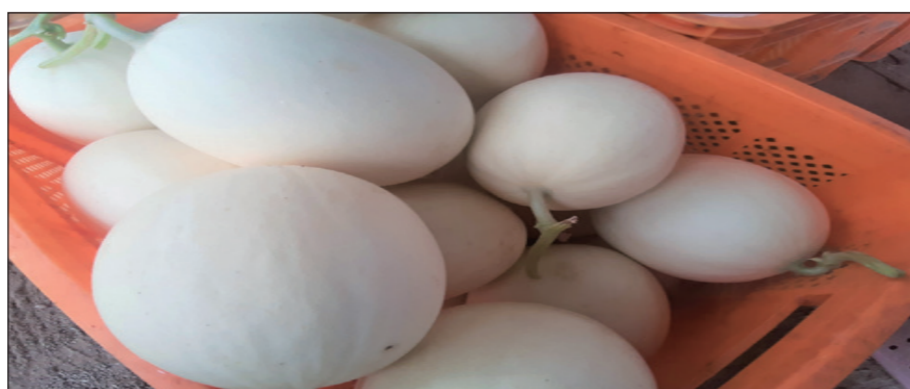
이 씨는 비닐하우스 50개동(3.3ha)에서 심는 시기를 3차례로 나눠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멜론을 수확하는 멜론 재배경력 19년차 베테랑 농업인으로 전량 직거래로 판매될 만큼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있

다.

특히, 2020년부터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한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를 이용해 당도가 16브릭스(Brix) 이상인 멜론이 출하되도록 고품질 멜론 수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늘그린 천안멜론' 상표로 유통되는 수신멜론은 당도측정 등의 선별과정을 거친 과육이 부드럽고 무늬가 없는 홈런스타 품종이다. 이달 말일부터 6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본격 출하가 시작되며, 올해 재배규모는 113농가 65ha에서 1,600여 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호기자



129

'21. 5. 22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통합형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150%이하로 확대

* 2021년 4분기 기준 소득 7,314,000원

지원시기

'21.5.2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경우부터 적용

서비스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포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문의

상세 소득판정 기준 및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시관할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용인 수지구 풍덕천2동, 관내 교회서 백미 240kg 기탁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은 지난 4일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kg 짜리 백미 12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훈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쌀을 직접 전달했다.

동은 이날 전달받은 쌀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훈 더드림 사랑의 교회 목사는 “어려운 이웃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서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고양시 명성운수, 코로나19 극복 위해 천만 원 기부



고양시 소재 명성운수(주)가 지난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양시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고양시의 대표 운수업체인 명성운수(주)(대표이사 서창호)는 20개 노선 336대를 운행하고 있다. 명성운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명성운수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특히, 어려운 이웃들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보탬다”고 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승객이 감소해 명성운수(주)를 비롯한 버스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민을 위해 기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COP28 총회 개최 신청을 하는 등 세계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수업체에서도 경유 버스의 전기 및 수소 버스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시내·마을버스 업체들은 차량 내부에 손세정제 비치, 매일 차내 소독 실시, 운전원 마스크

한영기/기자

'제49회' 어버이날, 봉화군 나형숙 씨 대통령 표창 수상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봉화군 봉성면에 거주하는 나형숙 씨가 효행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5월 7일, 동대문 스퀘어 서울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효행자 및 장한어버이에게 포상 및 격려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효행자'로 선정된 나형숙 씨는 봉화군 봉성면에 거주하면서 39년 간 시할아버지와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해 마을주민은 물론 봉화군민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다.

이러한 지극한 보살핌으로 시할아버지인 박수목 씨는 현재 110세가 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나형숙 씨는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제가 해온 것에 비해 너무나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이 크다. 앞으로도 시부모님들을 잘 모셔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겸손한 수상소감을 밝

혔으며, 이에 엄태항 봉화군수는 “5월 가정의 달 봉화군에서 이런 뜻깊은 표창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효자불패처럼 나형숙 씨의 수상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상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 제13대 김정원 회장 취임

바르게살기운동상주시협의회는 지난 6일 상주마리앙스 웨빙홀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정재현 상주시의회위원장, 바르게살기 도협의 회장 및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 제12대·제1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명부작성, 손소독기 설치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임 회장에게 감사패 및 기념패를 전달하고 깃발 이양과 신입회장의 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기초질서 확립과 이웃사랑

실천 등 바르게살기운동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강영석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온 바르게살기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난 6년 동안 바르게살기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강정대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김정원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에서는 반찬봉사, 집수리 봉사 등 1,000여명의 회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이웃돕기 나눔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반식/기자



김해시, 학원 자율방역단 출범



김해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5월 6일 11시 김해시 학원연합회 사무실에서 김해시, 학원연합회, 김해교육지원청과 함께 “김해시 학원 자율방역단”을 출범하였다.

‘김해학원 자율방역단’은 이현재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23명의 관내 학원 운영자가 직접 방역위원이 되어 김해시를 5개 권역(장유, 진영, 내외, 삼계, 동김해)으로 나누어 2인 1조로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을 방문하여

- ▶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방역수칙 안내
- ▶ 방역점검 후 보완사항 계도
- ▶ 방역수칙 준수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하여 학원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자율방역단은 최근 학생층에서 코

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원연합회가 자율방역단을 구성·운영하여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소통하는 방역을 추진하고 김해시와 교육지원청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김해시 학원연합회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학원 등에 대하여는 도교육청의 “모범학원”에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클린존” 스티커를 부착한다.

김해시와 김해교육지원청은 현장 점검 및 계도를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을 적극 지원하여 자율방역단의 자체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시·김해교육지원청·자율방역단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민관의 연대를 이뤘다.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남궁영기/기자

의왕시 청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위한 나눔꾸러미 지원

의왕시 청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일 관내 어려운 재가장애인 및 어르신 가정 20가구를 대상으로 봄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나눔은 청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직접 구성한 식품키트와 카네이션을 대상가구에 전달했다.

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어버이날에도 쓸쓸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살피주니 정말 기쁜 마음이

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달하는 이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종득 민간위원장은 “이번 나눔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소외되어 있는 취약가구 어르신들이 훈훈한 봄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이 없는 행복한 청계동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종균/기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남희숙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2021년 5월 7일(금)자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남희숙(南希叔)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입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남희숙 신임 관장은 국가기록원(1999년~2009년, 학예연구사/학예연구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2009년~2012년)에서 근무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2012년~) 조사연구과장, 연구기획과장, 자료관리과장을 두루 거친 박물관 전문가이다. 또한 전북대, 서울대 등에서 꾸준히 강의도 진행하여, 개인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인 연구자이기도 하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신임 관장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상설전시 개편 사업과 상설전시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의 위상 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홍성군, 제49회 어버이날 효행유공 대통령·장관표창 수상

홍성군은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경로효친의 덕목 실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효행 유공자로 4명이 선정,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장관,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통령표창 효행부문 고순자(66세, 광천읍) △보건복지부장관표창 효행부문 김기두(67세, 갈산면) △충청남도지사표창 효행부문 이우순(55세, 홍동면), 장한어버이 부문 박용순(71세, 갈산면) 등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고순자 씨는 7일 2021년 제49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효행 부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관천읍에 거주하는 고 씨는 광천읍 새마을부녀회 총무로 10년 이상을 활동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시부(92세)와 시모(91세)를 14년간 극진히 봉양하는 등 효 문화 확

산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김기두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94세)를 10여 년 동안 극진히 봉양하며, 마을이장으로서 마을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을 살피며 공경하는 등 효행 부문에서 남다른 공적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우순 씨는 치매를 앓는 시모(97세)를 30년간 헌신적으로 봉양하며 요양보호사 일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 타의 귀감이 되어 효행 부문에서 충청남도지사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박용순 씨는 수년간 마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마을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1남 3녀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시켜 지역사회의 귀감이 돼 장한어버이 부문에



서 충청남도지사표창을 수상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군민들에게 수상자들의 훈훈한 가족애와 감동을 널리 알려 경로효친과 사람이 넘치는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김원호/기자

디지털농업으로 노지작목(양파)생산성·재배 편리성 높인다

6일 전남 무안서 자동 물관리 시스템·무인기 방제 현장 실증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6일 전남 무안의 양파 농가를 방문해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이상기상에 따른 생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농업 기술의 노지작목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날 허 청장은 양파 디지털농업 현장실증 현황을 파악하고, 자동 물관리 플랫폼(운영체제)과 드론 활용 관측, 방제 기술 시연을 지켜봤다.

자동 물관리 시스템은 최적의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파 생육단계에 따라 구 비대기에 30kPa 수준에서 자동으로 물 공급을 시작해 5분 간격으로 일정 시간 동안 계획된 양(19톤/10아르, 1회 관수량)의 물을 공급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물관리 수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양파 생육이 빨라짐에 따라 생산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치비용도 헥타르당 3~5백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도 비교적 쉽게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제용 드론은 15분 동안 1헥타르 면적에 농약을 뿌릴 수 있어 현재 땅

이 사용되는 동력 분무기(2시간/1헥타르)보다 농약 살포 시간을 8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마을 단위 공동방제를 통해 작업면적을 늘리게 되면 방제에 드는 노동력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으로는 양파의 생육진단도 가능하다. 드론으로 촬영한 식물체의 병해충 발생 정도, 수분 함량, 불량묘(결주) 등 양파 생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양파 재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허 청장은 실증농가 현장 방문을 마치고, 전남 무안군의 양파 저장, 가공 업체를 찾아 디지털기술 적용 현황을 살폈다.

양파 저장업체는 저온저장고(1,650m2)를 갖추고 서울 도매시장에 하루 평균 20~30톤 양파를 출하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저장고 양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 환경을 구축했으며, 온·습도 관리, 아몰이 처리(큐어링) 등 독자적인 저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은 수확 후 전처리와 저장을 한 곳에서 할 수 있



는 양파 예건 겸용 저온저장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저장물량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입출고 관리시스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허 청장은 전량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색양파, 흰양파를 줍으로 가공하는 산지 가공업체를 방문해 양파 가공방식과 가공품 판매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허 청장은 "디지털농업의 성공 경험과 기술을 노지 분야로

확대해 희망하는 농업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적용 및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양파 디지털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박병만 농가(전남 무안군)는 "양파 생육기에 자동 물관리로 가뭄 피해를 줄이고, 드론 방제기술을 활용하면 농번기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대구시 희망을 더하는 공공일자리사업, 2단계 6,850명 사업 돌입!

5월 6일부터 대구시 전역에서 희망플러스일자리 + 정부 희망근로지원사업 시작

대구시는 2단계 공공일자리 사업을 5월 6일부터 3개월 동안 참여자 6,850명(대구형 희망플러스 5,000명, 정부 희망근로 지원 1,850명) 규모로 시행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8일까지 시 전역 114개 읍·면·동에서 참여를 희망한 12,049명 중 소득, 재산, 실직기간, 취업 취약계층 해당 여부, 휴·폐업 여부 등 선발기준에 따라 종합 심사한 결과 모두 6,50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사업자들은 6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코로나19 검사와 안전교육을 받은 후 백신접종 지원(580명), 행정지원(320명), 공공서비스 지원(820명), 공공환경 개선(2,030명), 구·군 특성화사업(1,320명), 생활방역(1,430명) 등 분야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또한, 5월 중으로 어린이집 방역(250명)과 공공시설 방역(100명) 등 생활방역 분야에 3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역 고용상황 악화로 올해 1단계 공공일자리 사업 신청에 1만3천여 명이 몰리자 연간 계획한 3천 명분 모두를 1단계에 우선 선별하면서 편성 예산 100억원 전액을 집행했다. 이후 시와 구·군을 합쳐 추정예산 500억 원을 편성해 연말까지 취업 취약계층 1만 명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

대했다.

또한, 전국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많은 국비를 확보한 '정부 희망근로지원사업'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과 같은 기간에 모집·시행해 추가 인원 약 2,500명 이상을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과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시와 8개 구·군은 이번 사업에 선발되지 못한 시민들에게 사업 취지와 선발기준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을 곧바로 총원해 1명이라도 더 빨리 일자리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사업에 이어 3단계 공공일자리 사업은 오는 8월 3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6,000명 규모로 신청자를 모집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경제적 지원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이번의 일자리 경험에 향후 민간 취업과도 연계되도록 '희망에 희망을 더하는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영기기자

울산시, 선박 스마트 물류 이송 항해시스템 상업화 '선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반 중량화물 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공모 선정

울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글로벌 선박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중량화물 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사업'에 본격 나선다.

울산시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정부사업으로 공모한 '인공지능(AI) 기반 중량화물 이동체 물류 플랫폼 실증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주), (주)포스코(POSCO), (주)일신해운,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중소조선연구원, (주)현대글로벌서비스, (주)로벨디지탈센터(울산), (주)선박무선, (주)산엔지니어링, (주)글로벌지티아이, (주)오리온테크놀로지, (주)드루닉스, (주)아비커스 등 대내외의 전문 기술역량이 뛰어난 15개 기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 과정에서 혁신기관과 대·중·소기업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국산화와 상업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탄탄한 사업화 구조로 정부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업은 총 430억 원이 투입되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항(POSCO)과 울산 동구(현대중공업) 연안을

운항하는 중량화물 이동체(Roll on Roll off 선박)를 통해 물류-운항 정보의 디지털화와 지능형 통합항해 시스템 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선기록(Track Record) 확보가 있다.

물류-운항 정보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철강 공급사인 (주)포스코(POSCO)와 수요처인 현대중공업(주), 운송사인 일신해운 3자가 선제, 후판 등 화물 물류와 운항 정보를 확보하고 일체화하여 물류 제조, 이송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보산업처리(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며, 향후 수출되는 승용차 등과 같은 단위 물품 관리가 필요한 화물에도 확대될 것이다.

지능형 통합항해시스템(AI-INS) 개발은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된 항해통신장비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등 항해통신기자재를 고도화하고 '지능형 통합항해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으로 통합 제품의 국산화를 수행하여 국내 항해통신 기자재 기업들의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은 지능형 항해 환경 인지를 기반으로 해상 상황에 따른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공유로 효율적인 물류운송에 기여한다.

항해통신기자재의 주요과제는 선



박자동식별장치(AIS) 등 11종의 고도화, 위치추정기(ARPA Radar) 등 6종의 국산화, 광선레이더(Lidar) 등 4종의 신기술 개발이다.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선기록(Track Record) 확보는 '해상 실증 테스트'로 물류-운항 정보의 디지털화와 지능형 통합항해시스템을 운항 선박에 탑재하여 화물(물류) 운송 중 해상 실증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료 시점인 2024년 기술개발 및 해상실증이 완료되면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제품 양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상선, 군함, 해경선, 해외 판로개척 등 국산 항해통신기자재의 시장개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 사업 추진으로 중소해운사 및 조선기자재 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조선-해운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경제적 효과로는 생산유발액 71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352억 원, 취업유발인원 377명으로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2,300척의 선박 발주 전망에 따라 국산 통합항해시스템(INS) 탑재 시 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달성도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송철호시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중량화물 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사업'은 자율운항 선박 선도 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유지와 함께 고부가가치 미래선박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부가, 친환경, 스마트 선박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울산이 세계적으로 조선헤안산업의 이끄러가는 중심도시로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수수료 1.7% '충남형 배달앱' 나온다

20% 안팎 기존 수수료 부담 덜며 소상공인 수익 증대 등 기대



충남도가 15개 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민간 업체와 손잡고, 수수료가 1%대에 불과한, 국내 최저가 수준의 배달앱을 내놓는다.

현재 영업 중인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2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소상공인들이 이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 절감을 통한 수익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류봉석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김만걸 삼제인 대표와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해 수수료가 과격적인 배달앱을 도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오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군은 지역에 맞는 사업을 위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며,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가입 외식업체 3만 5887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일괄 가입을 유도하고,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삼제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관리한다.

삼제인은 또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가맹점·고객·주문 데이터를 도에 제공,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

며,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고객의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다.

삼제인은 지난달 전문가 4명,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충남형 배달앱 운영 업체로 선정됐다.

국내 유명 배달앱 업체인 A사는 10~20%의 수수료를, B사는 18%를, C사는 15.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충남형 배달앱은 별도의 광고비나 임점비 등을 받지 않고, 1.7%의 주문·결제 수수료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충남형 배달앱 홍보와 소비자 가입 유도를 위해서는 쿠폰 지원 등이벤트를 개최한다.

도민들은 충남형 배달앱과 시·군별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2020년 9월 기준 2개의 배달앱이 국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광대한 외식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맹점을 확보하고, 삼제인의 준비된 기술력과 도와 15개 시군의 행정이 뒷받침하면 소상공인, 소비자, 시행업체 모두가 상생하는 배달앱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충남형 배달앱의 성공 정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고정화기자

충청권 시도지사 광역철도망 최종 반영 '합심'

충남도가 보령~세종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충청권과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대전의 한식당에서 허태정·이춘희 시장, 이시종 지사와 정기 오찬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경부고속선과 서해선 연결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점과 관련해 '충청권 행정협의회 공동건의' 등으로 힘을 모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12월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한 3개 철도망 사업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에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보령~공주~세종정사(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일반철도)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광역철도 △세종정사~조치원(일반철도) 등 3개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에서 건의한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어 이번 계획에서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는데 그쳤다.

이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보령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령선은 철도 교통 소외 해소의 기회이자, 동서를 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 최상의 노선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공동건의를 통해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중 충북선 기존 노선 활용 계획에서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세종시는 세종정사~조치원 구간을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변경해 6월에 확정·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4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관련 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수원시, 6월부터 공동주택단지 · 주택가에 '자원관리도우미' 배치

재활용 불가 품목 선별해 분리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수원시가 공동주택단지과 주택가에 소각용 쓰레기와 뒤섞여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한다.

환경부의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의 하나인 '자원관리도우미'는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 지역에서 재활용 불가 품목을 선별해 분리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계도하는 역할을 한다.

44개 동에서 설치할 에코스테이션(재활용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임시집합장), 재활용 분리수거 거점 등에 우선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5월 중 4개 구정에서 대상자 총

1288명을 선별해 6월부터 11월까지 현장에 투입한다. 1일 4시간, 주 3일 근무한다.

'자원관리도우미'는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비 48억 8600만 원(90%), 시비 5억 4400만 원 등 사업비 54억 4000만 원을 투입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며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 투기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

지난 22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했다.

각 동 통장·단체원 등 주민들도 상습 쓰레기 적치 장소를 틈틈이 정리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에 앞장서고 있다.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 이후 소각용 쓰레기는 감소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자원관리도우미는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모든 동(44개)에 에코스테이션(재활용쓰레기 순환 거점)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인력과 CCTV를 늘려 무단 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원관리도우미

가 쓰레기 배출 단계에서 재활용 불가품을 분리하고, 재활용쓰레기에 붙은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을 철저히 하면 재활용품 품질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며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은평구,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시행

무료 상담실 운영하여 위반건축물 사전에 예방

은평구는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 및 공정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점검계획을 세워 소형건축물(연면적 2,000㎡ 미만)은 분기별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용도변경, 방조개기, 발코니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신고건축물,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연 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 상담전문가(건축사)가 무료 상담을 실시하는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사용승인된 건축물 건축주(소유자)에게 주요 위반사례 및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등 '위반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홍보문'을 발송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을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조사·정비를 통해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전 직원이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금정구, 쓰레기 1년 무단투기... 구청직원 끈질긴 추적 끝에 단속

금정구 무단투기 단속반, 도로에 음식물 버린 식당업주 잡아 과태료 처분

1년 넘게 도로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식당 업주가 부산 금정구청 무단투기 단속반에 붙잡혔다. 이 업주는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로가 어둡고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장소를 수시로 바뀌며 음식물 쓰레기 상습 투기 행위를 일삼은 배달 전문 식당 업주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구가 밝힌 쓰레기 무단 투기자 단속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식당 업주는 관내 한 초등학교도로 인근에서 장소를 바꾸며 1년여간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도로 청소 환경관리원을 골치 아프게 했다. 환경관리원은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어 치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무단투

기 단속반에 적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단속반은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내용물을 뒤져 동일 식당의 소행이라 판단하고 인근 도로변의 CCTV도 조회해 쓰레기 투기 장면을 확보했다.

하지만 화질 문제로 번호판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었던 단속반은 CCTV 속과 비슷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식당을 탐문해 야간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14일 밤 투기 예상 장소와 식당 앞 등에 배치된 이들은 단체 채팅방 통화를 무전기처럼 사용하며 업주의 동선을 밟아 업주의 투기 현장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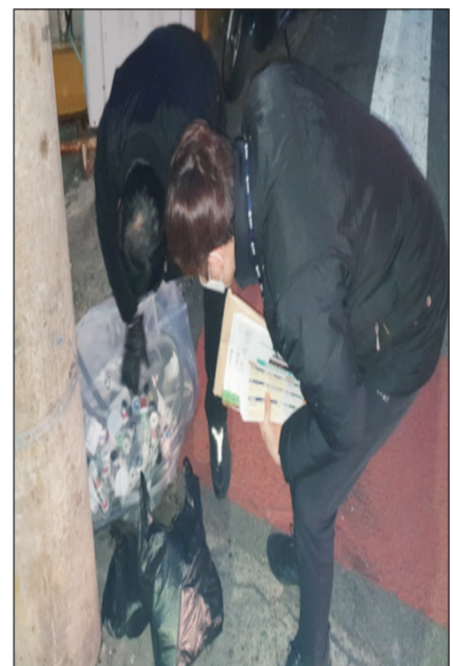
단속반은 업주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업주는 과거 음식물 쓰레기 투기 사

실을 인정했으며 이로써 1년여간 벌어진 무단투기가 종료됐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이번 단속은 금정구 무단투기 단속반의 열정과 오랫동안 살아온 단속 노하우가 어우러진 결과"라며 "무단투기 단속반과 환경관리원의 열정 덕분에 전국 어느 도시보다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자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정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2019년 443건, 지난해 283건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한다. 무단투기 단속반 소속 공무원 3명은 지역을 나눠 순찰하며 야간 단속을 월 2회 실시하고 있다.

남궁영기자



안성시 서운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캠페인 펼쳐

안성시 서운면(면장 김건호)은 지난 4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술, 담배 등 유해물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서운면 담당 공무원 및 청소년지도위원 약 1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앞장섰다.

지도단속은 면내 학교 주변 상가 일대의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 등을 방문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준수여부와 청소년 주류 판매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또한 청소년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과 철물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본드류 판매금지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김건호 면장은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전주시,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강화됩니다

시, 6일 전주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펼쳐

전주시는 6일 전주대학교 일원에서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안전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달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덕진경찰서와 함께한 캠페인에 이어 2번째로 연 이날 캠페인은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지된 전동킥보드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

캠페인에서 시는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원동기 면허 이상 미소자차 운행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화장치 미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했다.

시는 향후에도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덕진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학생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성숙한 주의의무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상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대폭 오른다

상주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오르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2배였지만 이날부터 3배로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시는 현수막 및 배너 게시,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과태료 인상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배려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남동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대표킬러'로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AWCS: Auto Warning Call System)'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대출 전단지 등 적정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남동구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 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 발신을 종료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퇴폐성 전단지는 발송주기와 횟수를 강화해 불법광고물 배포 및 불법영업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자동경고발

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변재현기자



강진군, 낚시성수기 맞아 안전장비 점검 실시

강진군은 지난 30일 마량항 일원에서 낚시어선 안전장비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강진군-해경-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낚시어선 20척에 대하여 지도를 완료했다.

군은 5월 낚시성수기를 맞아 낚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장비인 소화기, 구명조끼, 구명부환 등의 비치 유무를 어선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미비치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완료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날 낚시어선 점검을 마친 블루마린호 선장 우홍남(52세)씨는 "낚시어선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만큼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은 해양관련법을 준수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음주운항 금지에 다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영 해양산림과장은 "어류의 성육기인 5월중에도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 관내 바다낚시어선 주요 정



박지인 마량항을 대상으로 임출항 신고 철저, 무허가 영업행위근절, 안전운항장비 비치 여부 확인 등 현장

위주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길기자

청주시, 코로나19 대응 가축시장 방역점검 실시

청주축협가축경매시장 방역 지도·점검

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7일 청주축협가축경매시장에 대해 방역준수 사항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가축시장 진입차량과 장내 소독, 출입자 기록

부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안전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농가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

지만 철저한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가축시장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으며,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는 경매시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지도·점검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간 떨어지는 동거' 장기용-이혜리, '구미호 포스터' 공개! 장기용 아홉여우 꼬리 사랑~

장기용이 구미호로 변신하는 tvN 새 수목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 장기용, 이혜리의 포스터가 공개됐다.

오는 5월 26일(수) 첫 방송 예정인 '간 떨어지는 동거'(연출 남성우/극본 백선우, 최보림/제작 스튜디오드래곤, JTBC 스튜디오)는 999살 구미호 어르신 신우여와 쿨내나는 99년생 요즘 인간 이담이 구슬로 인해 열떨결에 한집살이를 하며 펼쳐지는 비인간적 로맨틱 코미디. 평점 9.97점의 동명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 '꼰대 인턴'에서 재기 발랄한 연출력을 뽐낸 남성우 감독과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백선우, 최보림 작가가 뭉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장기용은 999살 엄근진(엄격-근엄-진지의 줄임말) 구미호 어르신 '신우여' 역을, 이혜리는 구미호한테도 할말 다하는 99년생 요즘 인간 '이담'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구미호 신우여와 인간 이담의 손 끝 터치가 담긴 구미호 포스터가 공개돼 이목을 사로잡는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장가에 나란히 앉은 신우여와 이담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따스한 봄 햇살에 감싸인 듯 환한 빛으로 물들어 있다. 그런 가운데 신우여 뒤에 하얀 여우 꼬리가 살랑거리고 있어 시선을 강탈한다. 이담은 깜짝 놀라 토끼눈으로 신우여를 바라보고 있다. 신우여 또한 자신이 구미호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의 손 끝이 맞닿아 있는 모습 또한 짜릿한 설렘을 자아낸다.

이에 더해 '난데없이 구미호와 동거하게 됐다'는 카피가 흥미를 끈다. 인간 이담이 구미호 신우여와 열떨결에 동거를 시작하게 됐음을 알게 한다. 동시에 과연 이담이 어떤 이유로 구미호와 동거하게 된 것인지, 난데없이 시작되는 '구미호와 인간'의 한집살림 일상에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한편, tvN 새 수목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는 '마우스' 후속으로 5월 26일(수)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편스토랑' 총 24개 출시 메뉴, 기부금 2억 원 돌파!

'신상출시 편스토랑' 기부금이 2억 원을 돌파했다.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은 연예계 맛.잘.알(맛을 잘 아는) 스타들이 혼자 먹기 아까운 필살의 메뉴를 공개, 이들 중 매뉴판정단의 평가를 통해 우승한 메뉴가 다음 날 실제로 출시되는 신상 서바이벌이다. 소비가 기부로 연결되는 착한 미디어커머스를 실현해 호평받고 있다.

5월 7일 방송되는 '편스토랑'에서는 2019년 10월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이어온 '편스토랑'의 선한 영향력의 결과가 공개된다. 1대 이경규 마장면을 시작으로 24대 김재원 콕스테이크까지, 현재 총 24개의 출시 메뉴가 탄생한 가운데 총 기부금이 2억 1283만 9765원을 돌파한 것. 이 기부금은 결식아동 돕기 및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됐다.

이와 관련 '편스토랑' 출시왕 이경규는 "총 24개 출시 메뉴 중 6개가 내 메뉴다"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출시왕 이경규의 당당한 자기 자랑에 '편스토랑'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됐다는 후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 25번째 '돼지고기' 대결부터 '편스토랑'이 전환점을 맞는다. 그동안 '편스토랑' 우승 메뉴들은 편의점 간편식 및 온라인 마켓에서 밀키트 형태로 출시됐다. 이번 대결부터는 기존처럼 편의점에 간편식 제품을 만날 수 있음은 기본이고 직접 간단히 요리해서 즐길 수 있는 밀키트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맛볼 수 있다고. 밀키트 제품 출시 확장을 알린 '편스토랑'이 앞으로 어떤 강력한 메뉴들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갈지 기대된다.

한편 출시왕 이경규, 집밥퀸 오윤아, 방갑이 엄마로 돌아온 제주맥 한지혜, '기대일'로 등극한 펜세프 기대영 중 누구의 메뉴가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를 모은다. 치열한 경쟁

끝에 탄생할 '편스토랑' 25대 출시 메뉴는 5월 7일 금요일 밤 9시 40분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공개된다. 우승메뉴는 전국 해당 편의점에서 편의점 간편식 제품으로, 이외에도 해당 마트와 슈퍼마켓 등을 통해 밀키트로 출시된다.

현유주/기자



'오월의 청춘' 남태우 합류, 악랄함의 끝 '보안부대 수사관' 役... 남다른 포스 예고!

배우 남태우가 KBS 2TV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극본 이강, 연출 송민엽, 제작 이야기 사냥꾼)에 출연한다.

7일 소속사 루트비컴퍼니는 "남태우가 '오월의 청춘'에 합류해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됐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합류 소식을 전했다.

'오월의 청춘'은 1980년 5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버린 희태(이도현 분)와 명희(고민지 분)의 아련한 봄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레트로 휴먼 멜로 드라마. 독보적 레트로 로맨스로 방송 2회만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극 중 남태우는 보안부대 대공수 사과장 황기남(오만석 분)에 절대복종하는 조사관으로 분해 전에 있던 악랄함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그려온 친근한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잔악한 시대의 얼굴로 분해 남다른 포스 안방극장을 찾은 것을 예고했다.

특히, 황기남의 독한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줄 조사관 남태우가 어떠한 모습으로 악랄함을 실행할지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2018년 KBS 드라마 '파도야 파도야'에서 신선한 마스크로 시청자들

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데뷔한 남태우는 이어 MBC 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에서 득직한 예문관 손길승 역을 맡아 훈훈한 이미지와 맞닿는 연기로 눈도장을 찍었다. 영화 '내안의 그놈',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시지프스' 등 매 작품마다 특유의 존재감으로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다.

남태우는 소속사 루트비컴퍼니를 통해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게 되어 설레고, 무엇보다 시청자로서 무척 기대되는 작품이다. '오월의 청춘'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 한편, KBS 2TV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은 매주 월, 화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현유주/기자



'나 혼자 산다' 곽도원, '곽이유'에 이어 '곽동균(?)' 탄생?! 록발라드까지 섭렵한 네버엔딩 샐러우팅!

'나 혼자 산다' 곽도원이 '곽발라더'로 변신해 하동균도 울고 갈 애절한 감성과 격정의 고음을 선보인다. 곽도원은 노래의 감성을 100% 소화해내는 '메소드 창법'으로 과몰입을 유발할 예정이다.

오는 7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기획 안수영 / 연출 허황 김지우)에서는 '어머나 반갑습니다' 3탄의 주인공 곽도원의 제주 라이프 두번째 이야기가 그려진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곽도원은 발라드를 부르기 시작한다. 노래 가사에 완벽하게 감정이입한 곽도원은 3탄 고음을 선보였던 '곽이유'에 이어 하동균도 울고 갈 애절한 감성을 선보이며 '곽동균(?)'의 탄생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곽도원은 발라드에 이어 록발라드까지 섭렵하며 네버엔딩 샐러우팅은 물론 감정을 한층 끌어올리는 '메소드 창법'으로 보는 이들의 과몰입을 유발했다는 전언이다.

격정적인 고음 질주 끝에 도착한 곳은 넓게 펼쳐진 노란 꽃밭. 노란 꽃밭 한가운데서 양배추를 수확하는 곽도원의 모습이 포착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양배추 프로 수확러' 곽도원은 마음 따뜻해지는 나눔을 했다고 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한 차를 타고 지나는 길에 흠이 난 양파를 우연히 발견한 곽도원은 들뜬 마음으로 양파를 줍기 시작한다. 곧이어 주민의 다급한 외침에 양파 줍기를 멈춘 곽도원은 "골로 갈 뻔했다"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 그에게 전해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과몰입을 유발하는 곽도원의 '메소드 창법'과 양파를 줍다가 골로 갈 뻔한 이유는 7일 밤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스타들의 다채로운 무지개 라이프를 보여주는 싱글 라이프 트렌드 리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재은/기자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장광-최원영-박아인-문유강-임원희 합류! 명품 배우들 총 출동!

연기파 배우 장광과 최원영이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에 합류해 극에 무게감을 더한다.

더불어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가 캐스팅돼 밀고 보는 신스틸러 라인업이 완성됐다. 명품 배우들이 청춘 라인업 유승호, 이혜리, 변우석, 강미나와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연출 황인혁 / 극본 김주희 / 제작 (유)꽃피면달생각하고문화산업전문회사 (주)몬스터유니온 (주)피플스도리컴퍼니) 측은 7일 "장광, 최원영,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 등 명품 연기 부단의 캐스팅을 확정 지었다"라고 전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금주령의 시대, '선 넘는' 네 청춘이 우정을 나누고 사랑에 취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엄혹한 금주령이 내려졌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만 가져온 퓨전 사극이다. 연출을 맡은 황인혁 PD는 '닥터 프리즈너'를 통해 감각적인 연출로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아 이번 작품에서 그가 보여줄 참신한 연출에 기대감을 모은다.

먼저 장광은 현재 최고의 권력이 연조문 역으로 분해 존재감을 과시할 예정이다. 연조문은 30년 전 지금의 임금을 직접 용상에 앉힌 공신으로, 임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신하다. 그러나 점차 권력을 키워온 이시흠(최원영 분)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매 작품 완벽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는 최원영은 속을 알 수 없는 야심이 도승지 이시흠 역으로 분할 예정이다. 이시흠은 노비로 태어

나 임금의 총애를 받는 도승지까지 오른 능력자로 조카인 이표는 물론 남영(유승호 분)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극에서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팔색조 매력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드는 박아인은 한양 최고의 기방 기녀 운심으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전망이다. 운심은 눈빛으로 사람을 뺄 수 있을 정도로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로 밀주업자 심헌(문유강 분)과는 애증으로 얽힌 묘한 긴장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 최대 밀주조직을 운영하는 밀주업자 심헌 역에는 안정감 있는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문유강이 캐스팅되었다. 심헌은 금주령 시대 그의 허락 없이는 술을 빚어도 팔아도 안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술을 빚는 강로서(이혜리 분)와 어떤 이야기를 풀어 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캐릭터 소화력

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임원희는 황가 역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황가는 20년 경력의 노련한 사헌부 소유로 신임 감찰 남영과 짝을 이루는 인물이다. 임원희가 유승호와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기대감이 고조된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제작진은 "장광, 최원영,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의 합류로 극의 재미와 무게감을 더할 명품 연기 군단이 완성됐다. 신스틸러 역할을 담당할 연기파 배우 5인은 유승호, 이혜리, 변우석, 강미나 청춘 4인방과 조화를 이뤄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들은 시청자분들에게 현장의 활기차고 밝은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5월 중 첫 촬영을 시작해 올 하반기 KBS 2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고성군, 코로나19 철벽방역속 전국대회 줄줄이 성공적 개최

안전한 방역망으로 공공체육시설도 개방

고성군은 군 실정에 맞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이 2021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와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있다.

2021 동계전지훈련을 시작으로 2021 고성군수배 전국클럽축구대회, 2021 춘계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 2021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중고핸드볼선수권대회, 제51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 등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고성군이 안도하고 있다.

군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성군은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왔다.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대회 참가 14일 전 일일 동선체크표 작성 및 제출, 참가 기간 동안 일일 동선체크 및 일일 체온체크표를 제출받아 선수단 및 참가자를 철저히 관리했다.

또한 경기장 출입구에는 자외선소독부스, 열화상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등극자 확인, 문진표 작성 등 철저한 출입통제 체계를 갖추어 운영했다.

이러한 안전한 방역체계 시스템으로 공공체육시설도 개방하여 체육동호회 활동 지원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철벽방역 속에 스포츠산업육성의 근간이 되는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 에 전국 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놓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관계자분들께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제58회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전국의 40개 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어느 해보다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훈기자

제천FS, FK 드림리그 우승



제천FS가 한화생명 2020-21 FK 드림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재문 감독이 이끄는 제천FS는 2일 파주 NFC 풋살구장에서 열린 드림리그 준선전 경기에서 열린 드림리그에서 3-3으로 비겼다. 진형석, 김도환, 김경환이 골을 넣었다. 드림리그는 10경기 8승 1무 1패 승점 24점을 기록하며 최종 1위를 확정했다.

제천FS의 뒤를 이어 6승 4패 승점 18점을 기록한 인천아콘풋살클럽이 2위, 드림리그준선전FS(6승 1무 3패 승점 18점)이 3위를 기록했다.

한편 FK 슈퍼리그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진다. 12경기를 치른 현재 스타FS가 8승 2무 2패 승점 26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전순희기자

KPGA, 고품격 멤버십 커뮤니티 'THE CLUB HONORS K' 운영

구자철 회장 "KPGA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나설 것... 많은 분들의 가입 바라"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KPGA)가 이번 달부터 고품격 멤버십 커뮤니티 'THE CLUB HONORS K'를 운영한다. 'THE CLUB HONORS K'는 골프를 활용해 KPGA와 함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카운슬러형 후원 그룹으로 기업경영인,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THE CLUB HONORS K'는 소속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 ▲ 상호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 KPGA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기존 사업 영역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THE CLUB HONORS K'의 이름으로 KPGA 코리안투어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을 도모한다.

후원 취지에 공감하는 법인과 개인이라면 일정 금액을 후원한 뒤 가입할 수 있으며 KPGA 주관 대회가 펼쳐지는 대회장 내 브랜드 광고 제공, 공식 대회 프로암 출전, 골프 관련 포럼과 교육, KPGA 선수들의 맞춤형 레슨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THE CLUB HONORS K'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차세대 골프 선수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육성과 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어린이 환



우 지원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데도 앞장설 예정이다.

KPGA 구자철 회장은 “'THE CLUB HONORS K'는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GC의 회원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라며 “KPGA는 후원자들에게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나서며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KPGA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KPGA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가입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자선 프로암도 개

최하며 골프를 통한 나눔에도 앞장서겠다. 'THE CLUB HONORS K'는 명예와 긍지, 보람이 함께하는 가치향형 프로그램으로 국내 골프 산업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더불어 한국프로골프를 이끌어 갈 여러 후원자들의 참여로 투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THE CLUB HONORS K'에는 현재 10곳의 법인 및 개인이 가입을 완료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KPGA 성광수 부장과 김소영 대리를 통해 가능하다.

전순희기자

경상남도, 경남FC 유소년재단 현판식...유소년 축구 육성 본격 시동

김경수 지사, 유소년-프로 간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경남FC 명문구단 도약

경상남도는 (재)경남FC 유소년재단의 현판식과 함께 재단 후원회인 '아너스클럽'의 1호 가입 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단주인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FC의 이사진 25명, 그리고 설기현 경남FC 감독 등이 참석해 재단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재단은 경남FC 유소년팀 운영과 유소년 선수 지원 등 도내 유소년 축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프로축구와 유소년축구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2월 경남FC가 자본금 2억 원을 출연해 설립했고, 지난 3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음으로써 기부후원금 모집 등이 가능해졌다.

이사는 경남FC 박진관 대표이사 겸 감독이 재단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경남FC 임직원이 재단 사무국 업무도 겸한다.

한편 현판식에 앞서 경남FC의 이사진 25명 모두가 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단 후원회인 '아너스클럽' 1호 가입 행사를 가졌다.

이날 아너스클럽에 가입하고 재단에 후원을 약속한 경남FC 이사는 김



태용 (㈜센트럴 회장, 구자철 신성델타테크 회장, 강병길 흥한주력종합건설(주) 대표, 김효준 한일여고 이사장, 박재하 명성건설 대표, 오명원 (주)유비테크 대표, 김상석 경상남도 축구협회장, 오진열 창원시축구협회장, 김진근 창원시축구협회 수석 부회장, 윤두철 (주)산목재 대표, 이병직 이병직한의원장, 임진우 한국스티로폼&건설 대표, 정대윤 진주 서부농협 조합장, 조길환 창덕한의원장, 조달식 영일기계 회장, 최영식 농협은행 경남본부장, 최재호 (주)무학 회장, 최홍영 BNK경남은행장, 한국원 윈스포츠 대표, 서미숙 공간연구소(주) 대표, 황동간 세란병원 원장 등이다.

를 맡아오며 느낀 점은 결국 저변과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이라 말하고, “도민구단으로서 가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문구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유소년 축구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좋은 선수들을 키워내고 그 선수들이 경남FC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재단의 역할에 기대를 내비쳤다.

재단은 경남FC 유소년팀 운영, 경남FC 리틀 드림스 프랜차이즈 운영,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도내 기업과 상공인, 도민들로부터 기부후원금을 모아 재원을 더욱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조규성 결승골' 김천, 부산 꺾고 홈 승리 거둬

김천상무가 부산과 홈경기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챙겼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배낙호)이 5일 오후 1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1' 10R 부산아이파크와 홈경기서 후반 13분, 조규성의 결승골에 힘입어 부산에 1대 0으로 승리했다.

김천은 부천을 상대로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했다. 조규성-오현규-강지훈이 쓰리톱을 맡았고 심상민-정현철-박용우-안태현이 미드필드 진을 꾸렸다. 쓰리백은 이명재-정승현-하창래가 책임졌고 골키퍼장갑은 최철원이 꼈다.

김천의 선축으로 시작된 전반부터 김천의 공격이 몰아쳤다. 전반 11분 오현규를 시작으로 전반 17분, 문진훈전 상황까지. 김천은 부산의 골문을 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전반 30분, 이명재의 프리킥은 부산 최필수 골키퍼에 막히며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김천의 일방적인 공격이 계속됐지만 부산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부산의 선축으로 시작된 후반 13분, 천금 같은 선제골이 터졌다. 심상민의 크로스를 받은 조규성이 문전에서 헤더 득점으로 부산의 골문을 가르며 김천이 1대 0으로 앞섰다.

김천은 후반 29분, 강지훈 대신 정재희를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다. 후반 막바지에도 김천은 심상민, 박용우를 빼고 김주성, 권혁규를 투입하

며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가져갔다. 김천은 계속해서 부산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추가 득점 없이 1대 0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긴 김천은 오는 8일 오후 4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2 2021' 11R 부천FC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김세기기자

e국가대표팀, 'FIFAE Nations Cup' 본선 진출

나호철, 김승주 선수로 구성된 대한민국 e국가대표팀이 FIFA가 주관하는 e스포츠 국가대표전 대회 'FIFAE Nations Cup'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e국가대표팀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FIFAE Nations Online Qualifiers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에서 4위를 차지, 5위까지 주어지는 본선 출전권을 따냈다. 총 24개 팀이 참가하는 본선 대회는 오는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다. 'FIFAE Nations Cup'은 EA 스포츠가 개발한 축구 비디오 게임 'FIFA21'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실력을 가리는 대회다.

e국가대표팀은 총 10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실시한 조별리그에서 6승1무1패(승점 19)로 B조 1위를 차지,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A조 2위 일본에 패한 e국가대표팀은 B조 3위 싱가포르와의 2차 준결승에서 승리해 3-4위 결정전에 올랐다. 그러나 A조 1위 말레이시아와



의 3-4위전에서 저 4위로 대회를 마쳤다.

e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지역예선에 출전한 나호철 선수는 '나라를 대표해 출전하게 되어 감격스럽다. 그만큼 남다른 각오로 예선에 임했고, 본선 진출이라는 성과로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잘 준비해서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FA는 'FIFAE Nations Cup' 지역예선을 앞두고 4월 10일과 11일에 걸쳐 파주 NFC에서 e국가대표 선발전을 실시했다. KFA 공식 유튜브 채널 KFA TV를 통해 e국가대표 선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순희기자

죽전역 에일린의뜰'사이버 건본주택 운영 중 특별공급 17일, 해당지역 1순위 18일 청약

5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04-1번지 일원에 선보이는 '죽전역 에일린의뜰'의 건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청약일정은 5월 1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화) 해당지역 1순위, 20일(목)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당점자 발표는 27일(목), 정당계약은 6월 7일(월)부터 6월 9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다.

'죽전역 에일린의뜰'은 전용59㎡ 206세대 중 일반분양 126세대, 전용74㎡ 134세대 중 일반분양 122세대, 전용84㎡A 82세대 중 일반분양 8세대, 전용84㎡B 435세대 중 일반분양 342세대, 전용114㎡ 102세대

중 일반분양 10세대 총 959세대 중 일반분양 608세대로 죽전네거리 인근에서 분양하는 단지 가운데 11년 만에 가장 대단지 규모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자리는 핵심 생활인프라인 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이 직선거리로 약 350m로 도보로 누릴 수 있는 죽전역세권으로, 와룡로, 달구벌대로 인접, 신천대로, 성서, 남대구, 서대구IC 등 대구 전역과 대구 시외 등 접근성이 뛰어나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북쪽에 죽전초가 위치한 이른바 초폼아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있어 편리한 생활인프라가 조성되어 있

으며, 두류공원, 퀸로드 공원 등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또 올해 6월 준공이 예정인 서대구고속철도역과 약 14조 규모의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대구시신청사이전 등 서대구 비전의 직접적 수혜를 누릴 수 있다.

단지 특징점으로는 대단지만이 누릴 수 있는 설계와 조경이 좋다는 것을 꼽는다. 건폐율이 낮은 만큼 동간거리 넓어서 채광과 환기가 용이하고 입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일조권을 확보하기 유리하다. 단지 내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최대 약 780m 단지를 순환하는 긴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잔디마당, 물과 꽃

의 정원 등 다양한 테마정원과 조경 시설로 채웠다. 단지 내 텃밭정원, 야외 공원마당 등 주민 화합의 장도 마련되어 있다.

959세대 대단지인 만큼 약 568평의 대규모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다.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연습장, 실내골프연습장 수준 높은 운동 시설과 작은 도서관 및 독서실 등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쾌적한 학습공간도 갖추고 있다. 또 약 120평 대규모의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 지상에는 어린 6세 미만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유아놀이터와 어린이놀이터가 총 4곳에 마련

되어 있고 단지 주출입구에는 승하차대기실이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맘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분양가는 전용84㎡B 기준으로 가장 낮은 1층 566,000천원(3.3㎡당 17,079천원)에서 가장 높은 최상층 617,000천원(3.3㎡당 18,618천원)으로 타입이나 층별로 분양가는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확장비는 별도, 중도금 50%가 융자되고 이자는 후불제로 적용된다. 특히 계약자의 초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금을 분양가의 10%로 낮추었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초폼아, 죽전역 역세권, 959

세대 대단지 등 프리미엄 요소를 확실하게 갖춘데다 죽전네거리에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위치하며, 코로나19로 사전에 방문예약을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사전예약을 한 고객들만(동반 1인 가능)방문할 수 있다. 방문 예약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대별 입장 가능 인원은 제한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된다. 문의전화 (053-745-1006)

박류석/대기자

